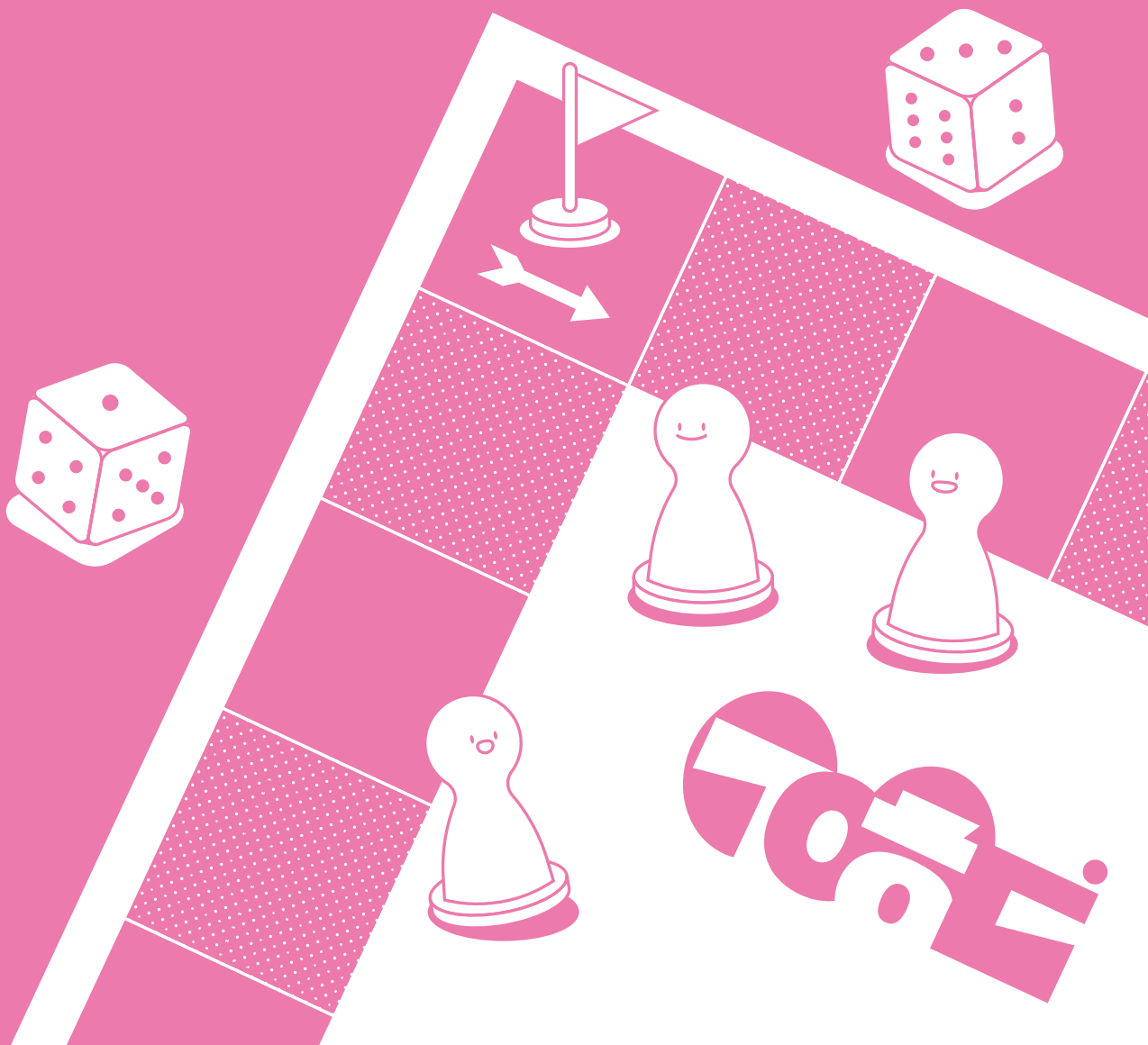


# 2023

# 시민공익활동지원

# 플랫폼 사업

# 결과보고서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  
**결과보고서**

#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 개요

- 1. 사업기간** 2023. 3. ~ 2023. 12.
- 2. 사업목적** 시민공익활동 발굴·지원·촉진을 통해 생활체감형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서울의 공공의제 발굴  
 기후위기, 사회적 약자, 시민사회 협력 등 사회 핵심의제와 연계된 시민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시민공익활동 기반 마련 및 지속유지를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

### 3. 사업내용

기초조사 ▶	의제 선정 ▶	공동협력추진단 구성·운영 ▶	시민활동플랫폼 구성·운영 (온/오프라인) ▶	시민 공론장
이슈별 시민공익활동 현황 조사 및 자문	의제선정 위원회 구성 및 의제 선정	<b>모집</b> · 이슈별 약간 명 · 시민공익 활동가, 시민사회, 지역,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  ▼ <b>운영</b> · 이슈별 시민공익활동 현황 청취 · 공공의제 발굴 및 실천체계 구축 실행방안 마련	<b>신청</b> · 공동협력 추진단 추천 · 이슈별 운영 · 단계별 참여  ▼ <b>실행</b> · 시민공익활동 아이디어 및 실행계획 접수  ▼ <b>공유</b> · 과정 및 결과 기록	· 시민 공론장 운영 · 핵심 의제 수립 · 실행단 구성

- 4. 시민 실천 강화** 1) 시민실천용품 제작 및 배포  
 2) 결과물 홍보를 위한 광고 및 캠페인 실시

### 5. 사업 일정

구분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기획	■	■	■							
기획자문평가단 운영 (기초 조사 및 자문회의)		■	■	■	■	■	■	■	■	■
의제 선정위원회 구성 및 5개 의제 선정			■	■						
공동협력추진단 섭외 및 운영				■	■	■	■	■	■	■
시민공익활동 발굴 및 시민활동플랫폼 운영 (5개 의제 공론장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						■	■	■	■	
시민 공론장									■	
광고 및 캠페인 실시									■	
시민실천용품 제작 및 배포									■	■
결과보고 자료집 제작(2종)										■

# 목차

**자료집을 펴내며 -** . . . . . 06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박승배 센터장 인사말

**1. 의제선정위원회** . . . . . 08

**2. 공동협력추진단 구성 및 워크숍** . . . . . 12  
 (5개 의제 21명)

**3. 의제공론장** . . . . . 22

- 3-1. 아동권 . . . . . 26
- 3-2. 외로움 . . . . . 34
- 3-3. 순환경제 . . . . . 50
- 3-4. 보행권 . . . . . 62
- 3-5. 디지털약자 . . . . . 74

**4. 시민공론장** . . . . . 86

**5. 공익활동 바.자.회. 온라인 플랫폼** . . . . . 108

**6. 후속모임** . . . . . 114

- 6-1.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 . . . . . 116
- 6-2. 후속 캠페인 . . . . . 120

**7. 시민실천용품 제작** . . . . . 124

**부록 - 의제공론장 발제자료** . . . . . 130

**자료집을 마치며 - 담당자들의 이야기** . . . . . 132

#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의 새로운 전개를 앞두고

시민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불편하게 느끼고 개선하길 바라는지 혹은 어떤 일에 부당함을 느끼는지 생활에서 체감하는 공익활동 의제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자료조사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아동권, 외로움, 순환경제, 보행권, 디지털약자 등 5개 주제를 선정했고, 시민과 활동가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듣는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을 운영했습니다.

공론장을 준비하며 소망했던 바람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참여자 간에 의제에 대해 전문성이나 이해도가 다르고, 공론장에 참여하는 동기나 목적이 달라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경험 자체가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참여자 서로의 연대, 공론장 참여자는 시민과 공익활동가 등 다양합니다. 서로의 활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응원과 지지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셋째, 참여를 통한 변화사례의 기대, 참여자들의 의견과 제안이 공론장에서 그친 채 휘발되지 않고 실제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도(도시정책지표조사, 서울시, 2021)를 보면 단체활동 참여율(친목회, 동창회, 지역모임/향우회/종친회,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시민운동단체, 노조 및 직능단체, 정당, 종교단체, 기타 등 10개 분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등을 공익활동 분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둘이 합쳐 4%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반면에 친목회 약 29.6%, 동창회 약 24.5%로 꽤 높습니다.

대개의 시민들은 공익활동 보다 친목회나 동창회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인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사적 연결망)과 어울리는 것이 낯선 사람과의 관계 맺기 보다 더 편하고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적 연결망 중심의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형성에 긍정적이지 않고, 사회참여 의식도 낮은 경향성을 지닌다고 합니다. 시민의 사회참여가 증가하여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낯선 시민들이 공동체로서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공론장 같은 사회적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4% 남짓의 참여율도 따져보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성별, 연령, 직업, 학력), 자원요인(소득, 주당 노동시간, 가계 경제 변화정도, 자녀 유무), 이념 및 가치관(사회적 신뢰, 타인과의 관계형성 능력, 거주지, 정치적 효능감, 정치성향) 등이 잘 조합되어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전망적 사고'가 형성되고 그에 관련한 행동과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마련될 때 시민의 참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4%의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가 함께 한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은 우리 센터에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시민, 활동가, 관련 의제의 연구자 등 기대와 이해, 경험이 다른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다양한 배경들이 펼쳐거나 겹쳐 만드는 풍경에서 고민합니다. 다섯 의제에 호응한 공익활동 주체들의 참여가 기억에 박제되지 않고 살아서 함께 가는 길, 그 길의 여정을 시작해야 하지요. 열린 결말의 새로운 전개에 앞서 2023년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2023. 12.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박승배 센터장

# 1. 의제선정위원회

# 개요

- 1.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의제선정위원회
- 2. 일시 2023년 6월 30일(금), 10:00~12:00
- 3. 장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마주보다>
- 4. 목적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에서 다룰 5개의 의제 선정
- 5. 참석인원 총 8명 (의제선정위원 5명, 배석인 3명)
- 6. 의제선정위원 명단

이름	소속기관(또는 활동명)	전문 분야
박내현	기록활동가	인권, 성평등, 노동, 지역자치
박승배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도시, 보행권 운동
안현찬	서울연구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active aging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기후 환경, 의류순환
젤리장	공공 소통 크리에이터	공공캠페인, 문화 기획, 홍보
배석: 사업 담당자(활동지원팀 유일영 팀장 / 최미령, 박예지 매니저)		



# 자세히 보기

## 1. 의제선정위원회 추진 배경

- ◎ 의제 발굴을 위한 자료조사, 자문회의 등을 토대로 내부에서 의제 발굴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함
- ◎ 여러 의제들 중 5개 의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선정 이유 및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 지역사회 및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활동과 연계된 현장 중심의 의제를 선정하고자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1인의 의제선정위원회를 구성함

## 2. 의제선정위원회의 논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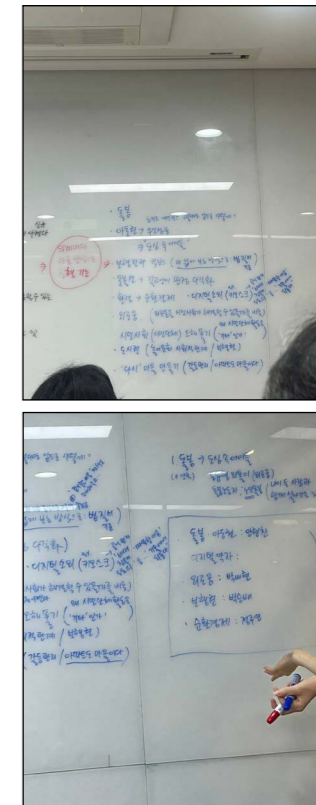
- ◎ 고려 사항
  - 1) 어떤 기준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 2) 의제에 관한 어떤 관점을 시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신한 의제를 소개하는 공론장
    - 익숙한 의제들에 대해 실천의 관점에서 방안을 만들어내는 공론장

### ◎ 의제의 범주 후보 및 제안(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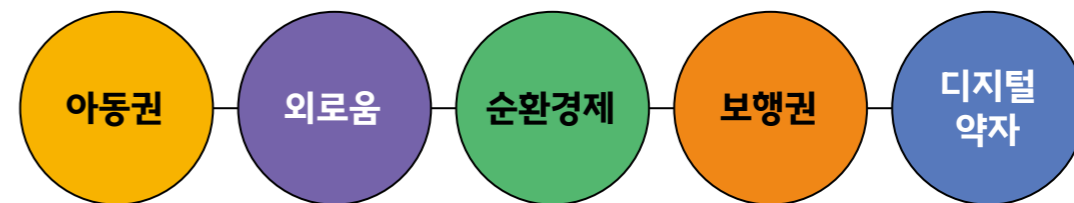
- 1) 삶의 존폐와 연결(환경문제)
- 2) 센터의 방향성 및 태도
- 3) 센터의 전략
- 4) 시민들의 다수 참여

### ◎ 의제의 범주 후보 및 제안(2차) -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 1) 돌봄
- 2) 아동권 (도심 속 놀 공간을 잃어버린 아이들)
- 3) 보행권 (배달오토바이, 킥보드, 걷기 좋은 서울 등)
- 4) 동물권 (길고양이 문제)
- 5) 환경 (순환경제)
- 6) 디지털소외(키오스크)
- 7) 외로움(외로움을 시민사회가 해결할 수 있을까?)
- 8) 시민사회 오해 풀기
- 9) 도시권(놀이 문화, 사회적 관계 등)
- 10) '다시' 마을 만들기



## 3. 최종 선정 의제 5개



## 2. 공동협력추진단



# 개요

- 1. **공동협력 추진단이란?**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의 5가지 의제별 관련 분야 활동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의제공론장을 함께 기획하고 만든 사업 협력 그룹
- 2. **구성방법**
  - 의제선정위원 및 유관단체 추천
  - 분야별 관련 활동 단체 및 전문가 직접 섭외
- 3. **활동기간** 2023.8.~12.
- 4. **공동협력추진단 명단**

아동권	외로움	순환경제	보행권	디지털약자
전주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박내현 (기록활동가)	정주연 (다시입다 연구소)	배성호 (송중초등학교)	김명희 (디지털융합 교육원서울지회)
유지은 (딱따구리)	김명환 (수상한 협동조합)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백은희 (정치하는엄마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
	이풍현 (니트생활자)	엄민경 (알맹상점)	서선영 (소소도시)	정소민 (세상은요지경)
	전성신 (니트생활자)	이은수 (노원도시농업 네트워크)	양한석 (건고싶은도시 만들기시민연대)	조경숙 (테크- 페미활동가)
	정은희 (두두협동조합)	허승은 (녹색연합)	이영선 (아차산마을 안전한통학로 주민모임)	

# 공동협력추진단 워크숍 개요

- 1.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공동협력추진단 워크숍
- 2. **일시** 2023년 8월 10일(목), 10:00~16:00
- 3.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 강의실
- 4. **목적**
  -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의 전체 일정 안내 및 공동협력추진단의 역할 소개
  - 의제별 공론장 및 종합공론장의 목표, 방향성, 형식, 프로그램, 결과물 활용 방안 등의 세부 기획 논의
  - 5개 의제별 공동협력추진위원회 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5. **참석인원** 총 22명 (공동협력추진위원 15명, 워크숍 진행자 3명, 센터 4명)



# 공동협력추진단 워크숍 자세히 보기

워크숍 프로그램		구분	내용
10:00 ~10:50	워크숍 열기	1-1. 워크숍 안내 및 아이스브레이킹	
		1-2.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 오리엔테이션	
		1-3. 위원 대상 사전 설문 결과 공유	
10:50 ~12:30	세션 ①	2-1. 의제별 문제의식 발굴   문제 현황	
		2-2. 의제별 문제의식 발굴   문제 원인	
		2-3. 의제별 문제의식 발굴   해결 아이디어 탐색	
점심 시간(60분)			
13:30 ~14:30	세션 ②	3. 조별 과제 진행   의제공론장 논의 주제 및 사례 탐색	
14:30 ~15:40	세션 ③	4. 의제공론장 참여대상 리스트업 및 설정	
15:40 ~16:00	워크숍 닫기	5-1. 결과 리뷰	
		5-2. 의제별 기획회의 일정 수립	
		5-3. 만족도 설문 작성	

# 의제공론장 논의 주제 탐색 결과 (1)

## 의제별 이슈 분석

구분	내용
아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문화 부족, 생활환경 좁음, 아동학대 이슈, 돌봄 부족의 문제</li> <li>·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점(아동권에 대한 인식 부족)</li> <li>· 양육에 있어서의 계층 간 양극화(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육의 형태와 질이 달라짐): 경쟁 및 이주문화와 성차별이 존재</li> </ul>
외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가구이기 때문에 이주 및 동거 과정에서 고립이 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건강에 영향이 생겨 주거 형태에도 영향이 미치는 점이 문제</li> <li>· 비교, 차별하는 한국 사회의 문제 때문에 박탈감을 느끼는 외로움이 생기는 점</li> <li>· 고립된 개인들이 온라인, SNS에 몰리면서 대안적인 소속감을 느끼지만 과연 그런 활동이 외로움을 채워주는가? -&gt; 악순환의 반복</li> </ul>
순환경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 수돗물이 건강한 물인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생수를 사먹는 문제에 대해 해결해볼 수 있는가?</li> <li>· 의류폐기물, 직물이 넘쳐나는 상황이고 환경 제 2위 오염산업이므로 단순히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버리고 생산하는 것이 문제</li> <li>· 플라스틱 : 옷의 합성섬유인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고 해양생물이 영향을 받는 문제, 현수막 문제점</li> </ul>
보행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순위에서 가장 후순위인 문제</li> <li>·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있는 도시 설계(체계)로 인한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해 보행자가 후순위인 점 / 차에서 내려서 많이 걸어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험 제공해보기</li> </ul>
디지털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약자의 범주 : 어르신, 장애인, 이주 외국인, 저소득층, 농촌주민 등</li> <li>· 현상 : 키오스크(이용이 불편), 디지털 격차, 디지털 환경 적응의 어려움</li> <li>· 키오스크 : 속도, 눈치를 보는 것, 이용이 불편해서 자꾸 질문하게 되는 점, 기기의 비규격</li> <li>· 디지털 격차 :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의 접근성</li> <li>· 환경 적응의 어려움 : 열차 등의 예약 시스템, 무인주차 결제, 택시 등</li> <li>· 용어의 어려움 (키오스크, 디지털 리터러시), 표준 가이드 라인, 캠페인, 맞춤형 교육, 이해관계자 및 기업과 협업 구조 생성 -&gt; 서울시 사례 : 천천히 해도 괜찮아 캠페인, 서울시디지털재단 사례 등</li> <li>· 디지털약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포럼 /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사례 : 이음단 등) 재밌게 알려주기 -&gt; 연극, 체험학습 등으로 풀어가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선된 사례를 홍보 영상 등의 캠페인으로 풀어가기</li> </ul>



## 의제공론장 논의 주제 탐색 결과 (2)

### 조별과제 결과(의제 범위 설정, 정책 및 캠페인 사례 조사)

구분	내용
아동권	<p>1) 공동육아 : 고립육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면서 양육자가 되었을 때 양육자 혼자만의 책임이 되는 사회 현상이 많음.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공동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나옴. 양육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양육환경을 만들어가며 인식을 확장해나가자</li> <li>· 교권, 인권 (서이츠 사건 등) 등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없다보니 개별 민원을 넣어 개별 소비자로 다가가다 보니 권리가 대립되는 상황. 함께 공동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권리의 대치가 아닌 공동 육아, 사회적 육아로 풀어나가 보자</li> </ul> <p>2) 아동의 생활환경(생활권) : 아동의 동선 반경으로 아동의 중심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디자인, 보행권, 키오스크 등의 사례를 찾아보자고 논의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성으로 참여 대상군을 설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제 공론장을 세팅할 때 아동을 중심으로 공론장을 세팅해서 양육자들이 잘 참여할 수 있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공론장 기획하면 좋을 것 같음</li> </ul>
외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과 어려움의 대상 : 청년 고립, 이주민, 중년 및 청년 남성</li> <li>·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외로움이라는게 특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논의 필요</li> <li>· 외로움 예방 방안 -&gt; 청년 고립과 은둔을 논하기 전에 외로움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예방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지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li> </ul>
순환경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두개의 이슈를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론화시킬 주제를 개별적으로 열어서 의제별로 미니테이블 구성하는 방식을 염두해두고 있음</li> <li>· 기획회의의 준비 시 각자 관심사나 다뤄보고 싶은 의제와 관련하여 사례나 정책, 캠페인 등의 사례를 준비해오고 우리의 문제의식이 담긴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볼 예정</li> </ul>
보행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 관련 활동가가 많지 않고, 관심자 등이 감소하는 추세 하나로 모아보는 자리를 마련 (보행권 관련 활동가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해보는 공론장)</li> <li>· 향후 보행권 정책을 확대해나가는 자리 마련</li> <li>· 지역에 가서 사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활동을 해보자</li> </ul>
디지털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가 디지털약자인가?를 주제로 당사자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토로하는 장을 마련해보는것은 어떨까?</li> <li>· 모집할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키오스크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원하는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등)의 점수로 디지털약자 기준 세우기</li> <li>· 포럼처럼 의제 공론장을 열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왜 디지털약자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자</li> </ul>



## 의제공론장 논의 주제 탐색 결과 (3)

### 참여대상군 설정

구분	내용
아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 및 돌봄 당사자 : 남편 양육자, 돌봄 종사자(어린이집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li> <li>· 청소년</li> <li>· 동네 상인들</li> <li>· 성소수자 아동의 양육자(아동 또는 부모 모두 해당)</li> <li>· 이주여성 양육자(아동 또는 부모 모두 해당)</li> <li>· 장애인 양육자(아동 또는 부모 모두 해당)</li> <li>· 사회적 취약 계층(정상가족 범주에 있지 않거나 경제적 취약계층) 양육자</li> </ul>
외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입법, 행정부)</li> <li>· 지원조직/전문가</li> <li>· 당사자성을 가진 참여자</li> </ul>
순환경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권 : 성동공유센터(25개 자치구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가게, 성동구청장, 민팅·인라이튼, 서강잡스, 서울시 리앤업 사이클플라자 담당자 등</li> <li>· 현수막 (플라스틱) : 호텔 침구 재활용 업체, 삼성병원 사무처, 장혜영 국회의원, 인쇄소, 옥외광고 철거팀, 야구팬들 모임(크보플)</li> <li>· 공항·압류(압수)물품 저감 및 재활용(재사용) : 공항 내 압수물품 담당자(전국), 자원순환 전문가(자원순환사회로 가는길 상임이사), 재사용가게, 항공사 관계자 → 출국수속 초기 단계에서 예방교육 및 조치 필요 / 비행 시 교체 용품만 가능 법</li> <li>· 일회용&amp;다회용 :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 서울시 제로카페 담당자, 일회용컵 다사용자, 다회용컵 서비스 기업, 정책입안자(환경부), 다회용품 서비스 도입 기업</li> <li>· 물순환 : 논의 예정</li> </ul>
보행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단체/지역 활동가/공공디자이너</li> <li>· 공공행정 : 시의원, 공무원, 성동구청장)</li> <li>· 전문가 : 시사인 전진경 기자 등</li> <li>· 인플루언서 : 하정우 등</li> <li>· 시민 : 관련 전공 혹은 관심자 등의 학생</li> </ul>
디지털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자성을 가진 참여자</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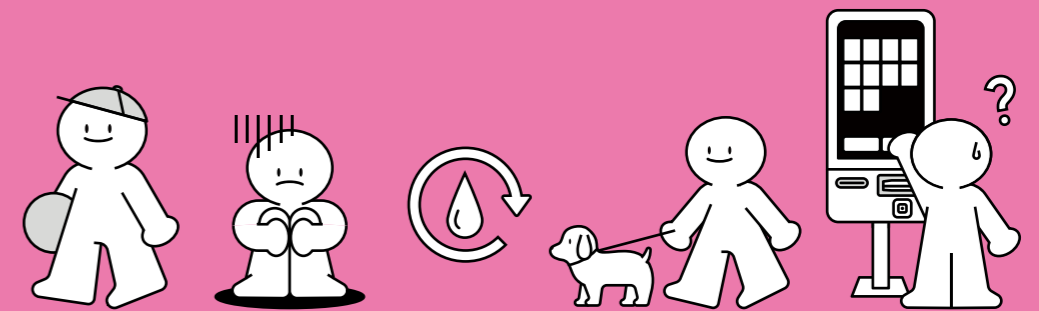
# 의제별 최종 결과 정리

구분	내용
아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문화 부족, 생활환경 좁음, 아동학대 이슈, 돌봄 부족의 문제</li> <li>·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점(아동권에 대한 인식 부족)</li> <li>· 양육에 있어서의 계층 간 양극화(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양육의 형태와 질이 달라짐): 경쟁 및 이주문화와 성차별이 존재</li> <li>· 의제 범위 설정</li> <li>· 1) 공동육아 : 고립육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면서 양육자가 되었을 때 양육자 혼자만의 책임이 되는 사회 현상이 많음.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공동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나옴. 양육자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li> <li>· 2) 아동의 생활환경(생활권) : 아동의 동선 반경으로 아동의 중심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디자인, 보행권, 키오스크 등의 사례를 찾아보자고 논의 됨</li> <li>· 당사자성으로 참여 대상군을 설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제 공론장을 세팅할 때 아동을 중심으로 공론장을 세팅해서 양육자들이 잘 참여할 수 있고,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공론장 기획하면 좋을 것 같음</li> </ul>
외로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로움을 겪는 주요 대상(청년, 이주민, 남성 등)을 분류할 수 있으나, 외로움은 전세대 누구나 겪는 문제임</li> <li>· 외로움은 증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정책 대상을 구분함에 따라 역사별 및 사각지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li> <li>· 따라서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함</li> <li>· 특정 대상이나 주제가 아닌 '외로움에서 사회적 단절 및 고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 장치'를 논의하여 보편적 복지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li> </ul>
순환경제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경제(환경) 의제 안에서도 다양한 주제가 개별적으로 존재</li> <li>· 1~2개 의제로 통일하기에 어려움이 있음</li> <li>· 따라서 의제별 문제의식을 토대로 다음의 주제 - 물순환, 현수막 처리, 수리권, 일회용품, 공항 반입 시 압수된 화장품 등 처리 - 로 미니테이블(5개)를 진행키로 함</li> <li>· 다음 회의 전까지 정책/캠페인 사례 관련 자료를 찾아오기로 함</li> </ul>
보행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에서 가장 후순위인 문제점이 있음</li> <li>· 후순위인 보행자 :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있는 도시 설계(체계)로 인한 사람들의 낮은 인식</li> <li>·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에서 내려 많이 걸어보는 경험을 제공해야 함</li> <li>· 보행권 관련 활동가와 관심자의 네트워킹 장을 마련해보는 공론장 운영</li> <li>· 보행권 정책을 확대해나가는 자리 마련</li> <li>· 내년에는 캠페인 등의 방식으로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방향으로 펼쳐보았으면 함</li> <li>· 자치구별 콜라보를 통해 (예시 : 성동구-상업&amp;광진구-주거지) 보행 발산지 되어보기</li> </ul>
디지털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의 디지털약자 그룹은 누구이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논의하는 장 마련</li> </ul>



# 3. 의제공론장

아동권  
외로움  
순환경제  
보행권  
디지털약자



# 의제공론장 추진 개요

- 1.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의제공론장
- 2. 추진 기간 2023년 9월 7일(목) ~ 10월 12일(목) 의제별 총 5회 진행
- 3. 추진 목적
  - 의제 관련 정보 제공 및 인식 확대
  - 의제별 주요 문제의식 공유 및 해결 방향 탐색

구분	아동권	외로움	순환경제	보행권	디지털약자
대상	서울에서 거주 혹은 활동하고 있는 의제별 관심자 20~60명				
일시	9/7(목)	9/14(목)	9/21(목)	10/5(목)	10/12(목)
장소	신촌역 히브루스 본점			노무현시민센터 1층 다모여 강의실	
내용	의제별 문제의식 공유 및 해결방향 탐색				

## 5. 추진 일정

구분	8월				9월				10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의제공론장 기획 회의 (의제별 2회)												
사전 설문 제작												
사전 설문 배포												
진행자료 제작												
의제공론장 진행												
결과 분석 및 보고												

## 6. 의제별 공론장 기획 회의

구분	일시	내용
아동권	1차	8/21(월)
	2차	8/24(목)
외로움	1차	8/16(수)
	2차	8/23(수)
순환경제	1차	8/31(목)
	2차	9/6(수)
보행권	1차	8/24(목)
	2차	9/5(화)
디지털약자	1차	8/22(화)
	2차	9/6(수)

· (1차) 의제공론장 주요 의제 및 참여 대상 확정  
· (2차) 의제공론장 추진 계획 최종 마련 및 초대자 리스트 확정

### 3-1. 아동권 의제공론장 개요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의제공론장 (1) 아동권
일시	2023년 9월 7일(목), 19:00~21:00
장소	히브루스 본점
주제	사회적 육아
참석인원	총 23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 3-1. 아동권 의제공론장 자세히 보기

분류	사회적 육아 어려움 / 원인	해결방안
아동친화 공간 부재	<b>주체로 머물 공간 부족</b> · 학원 등 아동이 대상으로 머무는 곳은 있으나 주체로 편하고 자유롭게 머물 공간 적음	· 돌봄을 받는 사람(아이, 약자)+돌봄을 하는 사람 (부모, 교사, 종사자, 가족) 모두에게 안전하고 열린 공적인 공간의 확장 (많이 만들기)
	<b>공간</b> · 아이들이 편안하게, 접근 쉽게 함께 지낼 공간이 필요해요	· 지역 내 보호자 취미 활동 공간 만들기 + 아동 안전 돌봄 인력 배치 (지역 이웃)
장시간 노동	<b>장시간 노동</b> · 장시간 노동은 남의 아이는커녕 내 아이를 돌보는 것조차 힘들게 한다	<b>노동 환경 개선</b> · 돌볼 수 있는 시간 제공 · 주 4일제 등
호혜적 관계망 빈약	<b>호혜적 관계망 빈약</b> ·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는 집 근처 양육자가 안심할 수 있는 관계망 부족	· 나부터 열기 · 호혜적 지역 소모임 활동 (공간 지원 필요)
학습 중심 사회	<b>학습 격차</b> · 소득 수준, 거주 지역에 따른 학습 격차	
	<b>학습 압박</b> · 학습해야 할 것이 많아 관계 속에서 배울 시간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입시, 취업, 더 나은 사회계층 진입 등)	
경쟁 중심 사회	<b>비교하는 사회 분위기</b> · 내 아이와 옆집 아이를 비교·평가 · 아이와 아이의 친구를 경쟁 상대로 판단 · 아이의 성공을 부모의 성공으로 인지 · 관심은 갖되 비교하지 않아야 한다	<b>기본 소득 등 사회적 안전 장치</b> · 무한 경쟁에 옥매지 않아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 ·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존중해야 함
	<b>경쟁, 성인</b> · 경쟁 중심, 성인 중심 사회의 문화	<b>경쟁 문화 타파</b> · 입시경쟁·각자도생·무한경쟁의 사회 문화가 사라져야 경쟁에 쫓겨 보지 못했던 아동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b>아동을 대변하는 권력과 책임 부재</b>	<p><b>아동을 대변하는 권력과 책임 부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사회 분위기를 바꿀 아동의 대변인 X</li> <li>· 권력은 없지만 (참여권) 사회규칙을 지켜야 하는 책임만 존재</li> <li>· 권력이 없으니 '육아'의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 묵살</li> <li>· 시민 1명이 아닌 (의무와 권한을 지닌)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로 인식</li> <li>· 아동에게 적어도 거부권이라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공간 만들기</li> <li>· 아동 현장 도전/체험 기회 적극 확대</li> </ul>
<b>부모 중심 울타리</b>	<p><b>예민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들은 연령별로 특성이 있기 마련인데, 어른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것(식당에서 웃고 떠는 것, 비행기에서 우는 것 등)</li> <li>· 이것이 아이가 아이답지 못하게 됨</li> </ul> <p><b>과잉 보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흔히 말하는 '맘충'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도 결국 고립육아로 인한 과잉보호 때문이라고 생각됨</li> <li>· 이런 과잉보호로 인한 부모들의 불편한 행동들이 타인이 예민해지게 하는 것이 아닐까</li> </ul>	
<b>돌봄 평가 절하</b>	<p><b>돌봄 평가 절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봄을 비용 없이 가정에서, 또는 저임금 노동력으로 할 수 있다는 인식</li> </ul>	
<b>돌봄 평가 절하</b>	<p><b>존중·존경의 부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존경이란 단어가 쓰이지 못하는 시대</li> <li>· 존경할 대상이 없다</li> <li>·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부터)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양육자 및 아동을 만나면 따뜻하게 웃고 인사하기</li> </ul>
<b>분위기· 문화</b>	<p><b>(양육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혐오로 가득한 시대만큼 양육 자체가 어려워짐</li> <li>· 맘충, 노키즈존 등 혐오와 관련된 단어는 많지만 '사회적 육아'는 단어 자체도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 만큼 어렵고, 모두가 논의해본적이 없음</li> </ul> <p><b>소통·대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웃과의 교류: 서로 인사하고, 집도 개방하며 교류를 통해 관계망 형성</li> </ul> <p><b>노키즈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안녕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타인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가 아동과 육아를 고립시키고 있다고 생각함</li> </ul>	

<b>공간</b>	<p><b>공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유공간의 역할을 아파트 단지(주상복합 등), 무인점포, 키즈카페 등이 대신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짐.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 등의 공간 부재</li> </ul>	<p><b>유희공간 개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시간대(시기)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li> </ul>
<b>양육자</b>	<p><b>(양육자의) 소유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를 하나의 주체로 보지 않다보니 과잉보호 하면서 양육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가가기 어려워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 전환</li> </ul>
	<p><b>아동대상범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 유인 등의 범죄가 아동을 속박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아 휴직 확대</li> </ul>
	<p><b>학벌주의·학력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학벌·고학력주의 사회가 아동기부터 교과학습만 강요하며 아동의 교육을 제한하고 아동을 사회가 아닌 공부방에 고립시키는 것 같음</li> </ul> <p><b>부모교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도 부모가 된 건 처음이라(광고 中)</li> <li>· 부모라는 것에 대한 부족한 교육이 노키즈존을 만든다고 생각</li> <li>· 부모들에게 부모에 대한 교육이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후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최소한의 양육과 관련된 부모교육 매뉴얼 배포</li> </ul>
<b>신자유주의</b>	<p><b>'사회적육아' 필요성에 대한 다른 목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들, 돌보는 어른들 모두의 행복한 시간·삶을 위한 '사회적 육아'가 아닌 노동·사회 발전을 위한 도구화</li> </ul>	<p><b>적당하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직된 사회 분위기 : 최고만을 추신시키는 사회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li> <li>· 본인이 만족한다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하다면 '신자유주의, 편견들과 공동체 미경험' 등의 문제점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li> </ul>
	<p><b>신자유주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의 성장, 자립, 자기증명이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육아조차 본인의 경제력, 능력으로 알아서 해야하는 것으로 만든다</li> </ul> <p><b>교육 입시의 무한 경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열·입시 위주의 교육은 개개인에게 협동보다는 경쟁, 내가 이겨야하는 존재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다.</li> <li>· 이러한 입시문화가 어릴 때부터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육아, 공동육아라는 개념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공부만 잘 하면 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보장선언 권리규약 같은 것을 교과서에 포함시켜 전국민적 교육</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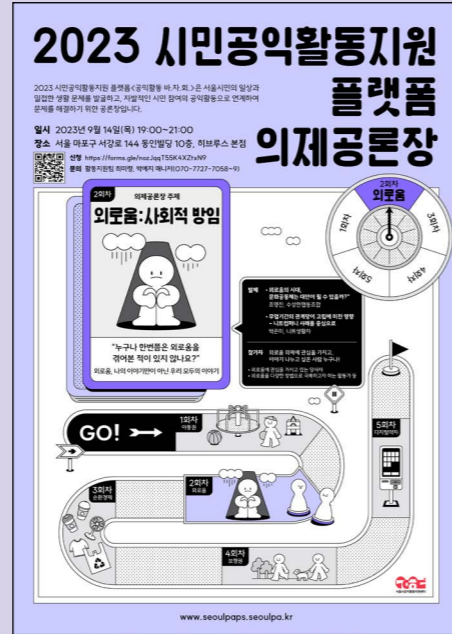
단절	<b>성인들 간의 단절</b> · 성인들간의 사회적 관계부터 단절, 고립 심화 · 사회적 욕구를 논의하기 전에 또 논의 되어야 할 중요한 의제 · 청/장년층의 사회 네트워크 형성 · 아동간 사회적 욕구에 대한 협의 가능
	<b>핵가족화</b> · 어른, 형제 등과 자라는 경험 부재 · 공동체 경험 ↓, 함께 지내기 위한 매너 학습 기회 ↓ · 공동체, 함께 지내는 것의 필요성 ↓ · 지역 내 다양한 돌봄 커뮤니티 조직화
	<b>경험의 부재</b> · 실은 어른들도, 교사들도, 가족들도 실제 사회적으로 돌봄을 받은 경험이 없어서 · 지역 아동 복지 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b>함께 놀 공간 부재</b> · 놀이터 대신 키즈카페, PC방, 쇼핑몰 ↑ · 자연스럽게 타인을 마주칠 광장, 놀이터, 공원 ↓ · 끼리끼리 놀고 교류하게 됨 (계급화 강화)
아동에 대한 이해 부족	<b>아동 존재에 대한 이해 부족</b> · 아동의 연령에 따른 발달 과정, 특징 등에 대해 무지, 편견만 가득 · 아동을 사회의 일원으로 여겨야 하는 인격체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없음 <b>아동에 대한 보편적 교육</b> · 아동과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들이 보다 아동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콘텐츠가 필요 '대상화'가 아닌 '존중'의 감각을 기를 방법 찾기
	<b>아동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b> · 시혜적이거나 여유가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놀이권도 마찬가지 <b>수용적 문화</b> · 타인의 다름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이해심
가부장제	<b>남성중심 가부장적 문화</b> · 많이 바뀌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양육, 육아의 주체하면 '여성'이 먼저 떠오르고, 그러한 여성이 짊어져야 하는 죄책감(일터, 가정 등)이 들게 만드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온 사회가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개념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

사회	<b>장벽사회</b> ·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의 격차가 계속 생기는 상황, 각자 도생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 마음의 여유가 생기기 힘들 · 이웃에 대한 관심·배려가 부족하게 되니 사회적 욕구가 어려움	· 오히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방향의 교류 확대 (맘 카페, 당근, 줌 등)
	<b>기술 발전</b> · 기술 발전으로 파생된 교류 단절 → 이웃간 연결 단절로 인한 사회공동체 형성X	
	<b>생활 수준의 상승</b> · 아쉬울 게 없는 세상, 이웃의 도움이나 필요 느끼지X · 자력으로 모든 생활 가능	
심리	<b>수용과 거부</b> · 문제 : 아동을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 · 수용 : 아동의 의견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내가 나로써 받아들여지는 것이 필요 · 아동의 거부권 : 나(아동)도 내가 마음껏 소리 지르고 뛰어 놀 수 없는 공간 내가 싫다. 노키즈존을 아동인 내가 먼저 거부할 수 있는 권리	
	<b>보호의 시선</b> ·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면 불안해져서 자율성을 줄 수 없어요 · 이웃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b>경계심(心)</b> · '경계'를 허물어야 그 다음이 있을텐데, 서로간의 경계와 구분이 훨씬 공고한 것 ·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마음이 먼저인 것 <b>세대 갈등</b> · 아동에 대한 배척의 당연시 (노키즈존·맘충) · 이해하지 않으려 하는 사회가 포용의 단절을 낳음	

<b>제도·시스템</b>	<b>육아기 주4일제 도입</b> · 육아 휴직 등 키우면서 생활도 가능한 제도가 필요해요	· 운동장에 청원 경찰 or 돌봄인력 배치해 개방
	<b>개방</b> · 학교 운동장, 아파트 놀이터, 공원, 많은 공공장소 개방해 주세요	
	<b>서울 생활권</b> ·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 아동을 모든 곳에 고려해주세요	· 동네마다 아동을 위한 거리 있으면 좋겠다
	<b>입시 교육</b> · 입시가 너무 중요해서 학습을 일찍 시작하여 놀 시간, 관계할 시간이 없어요	
	<b>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 부족</b> · 개인의 권리라는 것은 스스로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함. '아동권'은 아동 시기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권리를 청구하는 것을 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부딪힘 /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	· 경쟁적·계급적 입시문화 개선 · 교육제도 변화 이전에 의식변화

## 3-2. 외로움 의제공론장 개요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의제공론장 (2) 외로움
일시	2023년 9월 14일(목), 19:00~21:00
장소	히브루스 본점
주제	사회적 방임
참석인원	총 67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 3-2. 외로움 의제공론장 자세히 보기

Q. 외로움과 고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분류	내용
특징	· 외로움 - 극복하기, 고립 - 극복
	· 외로움은 (비교적) 자의로 해결 vs 고립은 타인의 도움, 사회적 문제 측면
	· 외로움 : 해소를 위한 몸부림이 있음(가능), 고립 : 단절 & 방법이 안보임 (힘듦)
	· 외로움은 감정(느낌), 고립은 위험, 문제의식
	· 외로움 : 감정적 상태 (누구나 외롭다), 고립 : 사회적 관계
	· 외로움은 늘 곁에 두고 보살펴야 하는 감정, 고립은 벗어나고픈 수동적 의지
	· 외로움은 감정, 개인적, 고립은 환경, 사회적
	· 외로움은 정서, 고립은 격리, 혼자, 물리적인 거리
	· 외로움 - 모두가 가진 감정, 고립 - 상태, 자발적 일 수 있다
	· 외로움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고립은 사회로부터 시작되는 현상
	· 외로움은 감정, 고립은 조건
	· 외로움 : 감정(개인적), 고립 : 개인 + 사회적 요소
	· 외로움은 감정, 고립은 외로움을 유발하는 상황과 조건
	· 외로움은 감정적 단절, 고립은 물리적 단절
	· 외로움은 감정, 고립은 상태
	· 외로움은 개인적 단절, 고립은 물리적 단절
	· 외로움은 감정, 연결되어 있어도 느낄 수 있는, 고립은 관계망이 끊어진 상태
	· 외로움은 보편적이고 누구나 느끼지만 비자발적이고, 고립은 은둔까지 가게 되는 보다 심화된 상태
	· 외로움 : 정서, 포함, 고립 : 물리적, 중립
	· 외로움 : 느낌, 고립 : 상황
· 외로움은 일시적인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립은 외로움이 지속되어 느껴지는 더 무거운 것, 벗어나기 더 어려운	

특징	· 외로움 : 혼자라고 느낌, 고립 : 사회적 연결 X
	·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감정과 체제 문제
	· 외로움 : 감정, 고립 : 상태
	· 외로움은 개인의 감정, 고립은 사회적 관계
	· 외로움 : 감정, 고립 : 사회관계상의 현상
	· 외로움 -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 고립 - 물리적, 정서적 소외되는 현상
	· 외로움은 생물학적, 고립은 사회 환경
	· 외로움은 상대적인 것(기준이 없다), 고립은 객관적인 것(기준으로 구분 가능)
	· 외로움은 감정, 고립은 물리적 상태 유발
	· 외로움 : 정서적 고립 상태, 고립 : 외로움이 부정적으로 지속되어 사회 관계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배제된 상태
비유 및 예시	· 외로움은 이해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걸까 말까, 고립은 아무리 살펴봐도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것
	· 외로움은 연결되지 못하는 느낌
	· 외로움은 이야기할 상대가 없는 것, 고립은 사회와 단절되는 것
	· 외로움은 가끔 느끼는 것(누군가가 있다는 것), 고립은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 외로움은 파도, 고립은 웅덩이. 오고가는 파도와 고여있는 웅덩이
	· 외로움은 감기, 고립은 병(원)
	· 외로움 : 슬픔, 고립은 쓸쓸
	· 외로움 : 아이디어, 고립 : 실행
	· 외로움 : 같이 있어도 외롭다, 고립 : 같이 있을 수 없다.
	· 다중 속 '나' + 주위 X
	· 외로움 : 나의 존재와, 고립 : 나의 언행에, 함께할 사람이 없는 것
	· 외로움 : 마음이 시리고 쓸쓸하고 공허한 느낌, 고립 : 갇혀있는 물리적인 소외된 현상
	· 외로움은 감정, 고립은 상태. 나를 필요로 하는 이가 없어, 세상에서 미끄러지는 느낌
	· "나 외로워"라고 말할 수 있으면 외로움, 그럴 수 없을 때 고립
	· 외로움은 슬프거나 막막한 순간, 고립은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 아무도 없다

발생 원인	· 외로움은 자초하는 것, 고립은 환경	
	· 외로움은 혼자 군중속에 자발적으로, 고립은 벽속에 있듯, 혼자	
	· 외로움은 자발적 고립은 타의적	
	· 외로움은 주관적, 고립은 객관적	
	· 외로움이 심해지면 고립이 된다	
	· 외로움은 징~헌 것, 잘 다뤄야 할 것, 고립은 무조건 끄집어 내줘야 하는 상태	
기타	· 인생의 숙제	
	· 외로움은 정책적 아젠다로서 역할	
	· 고립되어서 외롭다	
	· 외로움과 고립은 구분이 명확 X	
<b>Q. 고립이 되기까지 겪는 과정과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b>		
분류	키워드	내용
경제 활동	경제 활동 마비	· 노동, 소비 활동 중지
	경제적 곤란감	· 절대적 상대적으로 여유가 부족하다는 느낌, 괴로움
	돈	·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그나마 연결 되어있던 인간관계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돈을 생각하며 만남을 피하게 됨. 그로 인해 약속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만 결국 멀어지는 관계로 되어감
	직장	· 직장을 잃는다(없다)
사회 문화 및 시스템	각자도생	· 나의 안위만 챙길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 → 개인주의, 연결의 해체
	공동체 분열	·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인식하고, 틀린 것을 다른 것으로 인식할 때
	비교의식	·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서열화	· 나의 사회적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나의 언행이 평가 절하될 때
	성장중심주의	· 성장과 변화를 끝없이 추구하다보니 적응하지 못하고 속도에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사회 취약 계층), 예 : 키오스크, 스마트폰
	촘촘히 조직화된 시스템	· 너무 조직화된 시스템에 의해 사람간의 심한 경쟁과 인간 의지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 거대한 시스템에 비해 개인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낌
	폭력	· 때로는 어릴 때부터, 때로는 직장/ 가정 / 커뮤니티

사회 부적응 및 실패 경험	낙오	· 어디에도 속할 곳이나 기회가 없을 때... 갈 곳이 점점 줄어들 때...
	사회 부적응	· 내가 살고 싶은 세상,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회적 실패	· 대학동 쪽방촌으로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실패를 겪은 사람들이다
	주변의 비난	· 그래서 이곳(대학동 쪽방촌)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산다
	학습된 무기력	· 잦은 실패, 비교, 찍어누르는 말, 낙인, 압박감, 사회 반열에 진입 실패, 과업 수행 X, 성공의 경험 X (누적된 무력감)
	완전한 고립	· 완전한 고립에 빠지면 외부의 손길없이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거절	·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초기 상태다. 이 상태를 벗어나 가장 빠르게 고립이 되는 것은 거절이다. 사회, 친구, 가족, 혹은 사회복지사의 노력도 거절 앞에서는 어려워진다. 계속된 거절은 고립으로 가는 강한 신호다
	거절 경험의 반복	· 일, 학업, 관계에서 경험하는 거절의 경험이 반복되어 성공, 긍정의 경험이 점점 줄어들 때 누군가와와의 관계를 끊게 되고, 관계의 단절이 반복될 때 고립됨. 더 이상 힘들어 외로워라고 말할 곳이 없어짐
	반복된 좌절	· 반복되는 좌절의 경험으로 의지 박탈. 우울감 동반, 실패감 등 심리적 이유
	실패	· 실패 → 좌절 → 우울, 화 → 인간 관계 단절 → 고립 · 원인을 주변에서 찾으려고 한다, 사회에 대한 원망
실패감	·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짐	
사회적 단절 환경		·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해지지 않을 때
	공동체 부재	· 속해 있는 공동체가 없을 때
	관계	·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다, 인간관계에 두려움이 생긴다
	단절	· 사회로부터의 단절 (실직, 배척, 왕따, 갑질, 경제활동 X), 스스로가 선택한 단절 (번아웃, 소통의 어려움) · 소통, 관계, 생활 등 포기해가는 것? · 사회적 관계망의 절단 (예 : 혼자 놀기)
	대인기피	· 타인으로부터의 충격으로 인간 관계 기피하여 고립됨
		· 관계 단절
	두문불출	· 집 밖으로 외출이 사라진다

사회적 단절 환경	말(통화)	· 말을 많이 안 한다, 연락을 해도 잘 안 받는다
	모임	· 단체 모임에 잘 안 온다, 경조사에 참석이 없다, 웃는 모습이 없다
	방구석 여포	· 적도 친구도 없다
	사회적 단절	· 이별-사회적 관계의 예상치 못한 단절, 실직 - 사회적 자리 손실 등
	소속이 사라지는 환경	· 일할 수 없게 되거나 학교를 떠나거나 종교도 없고, 살던 곳을 떠나고
	연락 두절	· 연락이 오지 않는다
	웅크림	· 아무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인터넷	· 현실보다는 인터넷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다
	카톡에 광고만	· 다른 곳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카톡창에는 광고만 가득하며 심지어 그 광고를 읽지 않고 쌓여감
	통화/카톡/ 문자급감	· 주변인들과의 연락이 사라진다
	혼자 있는 시간의 증가	·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누군가와 함께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등을 하기보다는 혼자 있게 되는 것, 점점 혼자 있음을 선택하게 되는 것
	혼자있고 싶어짐	·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가 편할 때)
	SNS끊기(관계망 끊기)	· 본인이 연결 관계망을 끊는다, 모든 것에 무력감을 느낀다, 의욕이 없어진다, 귀차니즘, 스스로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인식 변화 자기 관리 및 일상 변화	극단적 자기 비하	· 사소한 도전에도 겁 먹고 시도 X, 자신을 지나치게 비하 / 비난
	무관심	· 남에게 무관심, 나에게도 무관심
	쓸모에 대한 고민	
	피해망상	·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본인만이 피해자라고 과대 망상하면서 고립됨
	현실 외면	· 내가 처한 상황,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거부, 현실 세계에서 도피
	날 이해 못해! (이해받지 못함)	· 가까웠던 사람 & 즐겨했던 모임에 실망하고 시들해지고 나를 이해 못해준다는 생각이 든다 ·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나를 설명하는데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씀
	말하기가 싫어!	

<b>인식 변화 자기 관리 및 일상 변화</b>	<b>부정</b>	· 현실, 자기, 타인 부정
	<b>자의식 과잉</b>	· 자기 혼자 있는 상태가 길어지면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나 '나'의 생각에만 몰입되는 모습
	<b>현실도피</b>	· 현실을 받아주고 싶지 않은 생각들
	<b>회피</b>	· 해결하고 실행할 문제들을 회피하여 원상태의 변동이 없음
	<b>(이주민 한정) 명절발작증세</b>	· 설/추석 때 집 내려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함
	<b>건강 악화</b>	· 불규칙적 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 (알콜, 성인병, 비만 등)  · 나 혼자 자꾸 밥을 먹게 될 때
	<b>누워있음</b>	· 침대, 갓생, 번아웃, 불면, 넷플릭스, 암막커튼(개인화된 힐링), 실패 공포, 잠을 많이 잠
	<b>밤</b>	· 낮보다는 밤 시간에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같다
	<b>번아웃</b>	·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있고 싶음
	<b>불규칙한 생활패턴</b>	· 외출 감소, 연락 두절, 갈등, 예민 등
	<b>신체적 건강 악화</b>	· 운동, 산책, 적절한 식사와 불규칙한 수면 등으로 실제 건강이 나빠짐
	<b>알수 없는 신체 반응들</b>	·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두통을 달고 살아요(다양한 통증), 신체 일부 무감각, 마비 등
	<b>우울증 및 수면 장애</b>	
	<b>위생</b>	· 정리안함, 씻지 않음  · 자기 돌봄 X, 기본적인 관리 X, 집 밖으로 X
	<b>자기혐오</b>	· 모든 것이 내 탓인 것 같아서 위축되고 자신을 싫어하게 된다. 숨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b>잠수</b>	· 점점 연락이 닿지 않는다
	<b>조용하고 과묵함</b>	· 조용하고 과묵함
	<b>중독</b>	· 인터넷, 음주, 흡연 등 의존할 수 있는 무언가에 기대는 것
	<b>집순이</b>	· 집(익숙한 공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b>행동 신호</b>	· 연락을 무시한다, 밥을 먹지 않는다, 집을 나가지 않는다, 씻지 않는다, 말을 안한다 라는 행동을 보인다  · 슬픈 드라마 보기, 음악 크게 듣기 (볼륨 ↑)

<b>인식 변화 자기 관리 및 일상 변화</b>		· 학교 졸업하고 급격히 줄어드는 친구, 타지역으로 학교나 취업하게 되는 등
	<b>침묵</b>	· 말이 없어지고 다가오는 연락들에 답하기가 어려워 피하게 됨
<b>정서 및 감정 변화</b>	<b>부정적 감정</b>	· 짜증, 화, 무기력, 귀찮음, 꼴보기 싫은 감정들이 나도 모르게 올라온다
	<b>있는 그대로</b>	·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 (함부로 판단 당할 거라는 부담감 ↑)
	<b>호기심이 말라버림</b>	·  · 미래 희망이 없다
	<b>낙담(좌절)</b>	· 작은 실패의 반복을 통한 자신감 하락, 관계 포기
	<b>무감흥</b>	·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친구들한테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고, 취미나 여가를 해도 재미있지 않고, 의미있는 충만한 감정이 점차 기억나지 않는다
		· 자의로 상태를 회복시킬 힘이 부족한 것 같다  · 무기력, 우울함, 무표정, 실어증,  · 의지 상실  · 하고 싶은 것이 없다고 한다
	<b>무기력</b>	· 계속해서 자거나, 무언가를 할 의욕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매일 시도할 마음은 있지만 해내지 못하는  · 무언가를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의욕이 사라진다  · 식사도 거르게 되고, 움직임이 줄어들고, 귀찮음을 늘 달고 살고, 잠을 내내 자던가, 심리으로 '나만 왜 이리지'하며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들 → '난 안돼'라고 낙담하게 됨 → 관계망 저하  ·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는 상태  · 에너지 고갈, 움직이는 반경 좁다, 무표정  · 나 자신에 대해 무기력해지면 의욕 상실로 관계 맺음이 어렵다
	<b>부정적</b>	· 매사에 부정적인 태도, 겁을 먹는다, 무서워한다, 거리를 둔다
	<b>불안</b>	· 자신에 대한 신뢰, 자신감이 줄어들고 나 밖의 세상, 타인과의 관계 대화를 적절하게 하지 못함
	<b>불안증</b>	
	<b>삶의 의욕 ↓</b>	· 자기 스스로 활동 거리, 관계, 소통, 움직임을 억제 제한
	<b>외로움</b>	· 외로움에 감정이 해소되지 못하는 것

정서 및 감정 변화	외로움 부정, 혐오(분노)	· 비자발적 고립(물리적으로 넘어)을 합리화하며 외로움을 부정하고 외면하여 더욱 소외, 고립됨. 이후 혐오 과정으로 연계되기 쉬움
	우울감	· 우울한 느낌이 들면서 사회 관계가 줄어들음
		·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들
		· 사랑, 인정,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무력감
	· 우울감, 우울증, 당사자 문제가 소통이 안 됨. 자의, 타의에 의한 혐오, 외로움 환경에 놓이는 것 - 1인 가구	
	· 일처리를 잘 못함, 무관심, 일상 생활의 흐트러짐(불면, 청소X, 무기력)	
	우울증	· 병명으로 명확히 판정 받으면서 개선 활동 없으면 정신적 고립 상태가 됨
	자살에 대한 고민	· 방 안 생활이 계속되면 번민이 커지며 어떻게 하면 잘 죽을지 고민하게 된다
	자신감 결여	· 자신감 결여로 인해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방 안에서 생활한다
	자신감 상실	·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어짐
자존감 저하	· 자포자기로 연결, '인간다움'의 포인트를 넘지 못하여서	
포기	· 집 밖을 나가볼까?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해볼까? 배달음식 말고 외식이라도 할까? 괜히 다 부질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함 (무언가 더 해보는 걸 포기)	
피로감	· "인간 관계고 뭐고 다 지친다. 쉬고 싶다"는 생각과 탈력감	

**Q. 고립으로 가기 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분류	키워드	내용
개인적 실천 및 자기 관리	루틴	· 컨디션이 안 좋아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생활
	작은 성공	· 이불 정리, 씻기, 산책, 물 마시기, 일상 속 작은 행동부터 시도하기
	(함께 잘) 놀기	· 쓸모없는 (없어 보이는) 활동을 많이 한다 (몰입, 관찰, 자각, 언어화, 감각 번역, 재미, 친구 등) 치유, 상호 돌봄
	개인	·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시도하고 존중하려는 노력 (특히 30대 이상 남자)
	몸을 쓰자	· "함께 산다"라는 것은 수고로운 일, 몸을 써서 어울리자
	무목적	· 목적없이 말 걸기, 취미 생활 하기 (동호회 활동), 조건 없이 밖에 나가기

개인적 실천 및 자기 관리	열정	1. 무엇이든 해보려는 열정이 식으면 안 된다. 2. 어떤 결과에 대해(칭찬)을 아끼지 않는 표현을 한다
	영업 도전	·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제안을 거절할 뿐이라는 걸 스스로 받아들이고, 거절 처리 연습
	움직이기	· 생각에 매몰되면 확 고립이 밀려옴. 생각의 늪에 빠질 것 같을 때, 몸을 움직여 다른 집중할 거리를 찾기 (예 : 청소, 산책 등)
	일상의 회복	· 넉넉한 시간 안에서 스스로를 돌보고 회복한다면, 건강한 마음에서 고독을 예방할 조건이 갖춰지겠지?
	콘크리트 벽 안에서 나가보기	· 동네 걷기 + 산책, 시시각각 바뀌는 풍경에 의미 부여하기, 타인을 위한 의미있는 일로 연결하기 (예 : 플로깅, 타임뱅크 제도 등)
		· 건강 챙기기
		· 사람을 쉽게 생각하기
		· 자기 돌봄, 햇볕 쬐기
		· 내가 할 수 있는 것 찾기 (걷기, 보기, 숨쉬기, 잠자기 등)
	교육 및 대화 활성화	독서 토론
학교/직장에서부터 대화하기		· 솔직하게, 안전한 환경 만들기
문화 및 인식 변화	개인탓 X	· 개인의 문제 or 의지 문제라는 어이없는 구시대적 발상 하지 않기
	경제적 조건이 투영되지 않는 공간들	· 배제, 차별, 구분 없이 '나로써' 온전할 수 있는 공간에서 느끼는 인류애
	관심	· 비교의식 보다는 서로에게 관심 있는 것을 묻고 대화 나눠요
	네 잘못이 아니야	· 사회적 장치가 고장나서 발생한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게 만드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논의할 장소 (공론장)의 중요성
	다양성	· 다양한 관계망의 인정, 현성
	사회 기초의 변화	· 평가, 비교(외모, 돈) 하지 않는 사회. 인정해주고 박수쳐주는 사회(예: 실패 박람회)
	사회 문화 변화	· 적당한 때라는 건 없다. 삶의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동의 필요
사회 인식 변화	· 1.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것, 잘못된 것이 아닌 감정, 낙인하지 않는 것, 일반화 시키지 않는 것 · 2. 일편화된 사회 인식의 변화 (직장, 다양성에 대한 인식)	

문화 및 인식 변화	실패가 괜찮은 사회	·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인정	· 있는 그대로 보기(각자의 본성, 삶의 방식), 비방 비난 금지, 그럴 수 있어(너니까)
	자랑 자제 문화	· 우리 서로 잘난 것과 자본, 물질 자랑은 그만하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해주는 문화
		· 사회 다양한 삶의 모습 조망하고 지원하기
사회적 소통 및 지지	대나무숲	· 학업, 일 등의 일이 잘 안 될 때 고립된다, 하소연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예 : 문화 안전망, 인적 관계망)
	연결망	· 끈끈한 연결망, 나를 놓지 않을 한 사람, '뭐라도 해보자'는 마음, 꾸준한 외출
	관심	· 주변인들의 관심
	관심(연락)	· 서로 관심을 갖고 연락하기, 근황·안부 연락, '혼자'라는 생각 들지 않도록
	동네 안전망	· 수상한 협동조합, 니트 생활자가 동네마다! 나이든 사람을 위해 또다른 안전망
	들어주기 (경청)	· 외로움 상담소, 복덕방, 신문고 등 외로움 들어주기 플랫폼
	불러내는 것	· 고립으로 가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외롭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자의로 벗어나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와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립되어가는 사람을 자꾸 불러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언젠가 불러낸 사람 역시 고립 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지지·소모임	· 취미, 1인 가구, 상황에 맞는 사회적 지지 및 소모임의 기능 강화 (온/오프)
	소통 창구 마련	· 중요한 전환길목에서 상태 털어놓을 창구 마련 - 자살 생각, 모임 회피 등 고립의 신호가 자각될 때 편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필요 - 현재 정신건강센터, 가족센터 상담 → 무겁다
	수치심과 존중감	· 나에게 '수치'를 주는 말들 대신 존중과 연결을 위하는 말들에 귀 기울이자
	안부	· 서로 안부 물어주기. 건강해? 괜찮아? 어떻게 지내? · 인사하기
	연대(지지)	· 인정, 지지(잘하고 있다), 커뮤니티로 함께하기, 연락
	응원	· 있는 그대로 지지, 손 잡아 주기, 지역 동네 소모임 만들기, 돌봄과 지지 체계

사회적 소통 및 지지	의지할 곳을 찾도록 돕는 것	· 사람, 장소(온/오프), 일 등 외로움을 호소할 곳이라도 있으면 외로울 순 있어도 고립되지는 않는다
	인사하기	· 나부터 주변에 다가가기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인정	· 이해가 아닌 그 사람을 그 상태로 인정해주기
	잘 지내?	· 뭐하고 지내? 그냥 연락해봤어. 가변운 인사가 가끔은 따뜻한 온기를 나눌 기회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지, 눈치채주기	·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기, 조금 빨리 눈치채주기
	친구	· 한 두명의 진정한 친구, 지인 · 안부묻기
시설 및 공간 제공	공유 공간 & 공공공간	· 눈치보지 않고 쉬면서도 타인과 적당한 거리로 어울리게 되는 돈을 내지 않아도 이용하거나 누릴 수 있는
	동네 심야식당같은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 다양한 연령, 직업이 성별 섞여서 밥을 나누는 곳
	무료 공공 장소 확보	· 무료로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민이 언제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장소의 힘	· 마음의 휴식처, 사람(온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사회적 이벤트 무대 · 아파트를 허물어야 한다
	벤치	· 우연한 만남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공 장소에 벤치를 더 많이 만들어요
	일자리	사회적 대화
일자리		· 마을 일자리 발굴, 개발
취업		· 취업 → 무업기간 탈출, 단체 소속, 문화생활, 취미생활, 주기적이고 건강한
자조 모임 및 활동	당사자 조직	·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당사자 조직을 만들어 활동하면 도움이 된다
	당사자 케어	· 같은 상태 즉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당사자 케어 필요
	윗말협의회	· 대학 등 윗말 협의회는 1인가구 자조 자립 권익 향상을 위한 모임으로 1. 마을 기업을 통한 자조·자립 2. 당사자 케어를 통한 돌봄 3. 마을 금고 4. 창의 조직 운영 등을 목표로 한다 · 외로운 사람끼리 자조 모임 커뮤니티, 독려 커뮤니티



정책 및 체계적 지원	정보제공	· 적극적으로 고립으로 가는 사람에게 개입하기보다 고립에 스스로 빠졌다가도 해당인이 언제든지 잡고 나올 수 있는 도구(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게 정보 제공 및 홍보
	정서적 복지제도	· 1인 가정 방문 상담
	제도 보완	· 다양성을 넘어 1인 1세계인. 현대 사회에서 관계망 형성 촉진 지원
	고독사 예방	· 당사자 케어를 통해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다
	교육, 홍보	· 외로움, 고립에 대한 사회적 교육 시스템 개발, 법정 의무 교육만 강조하기보다는 사회적 교육에 대한 제도 필요
	도움	· 주변인, 전문가의 도움 받기
	돌연사 예방	· 1인가구 중 장년은 고독사 예방에 더하여 돌연사에 대해 항상 공포를 느낀다
	무연고 사망자	· 장례, 공영 장례 마련
	발판	· 누구든 사회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복지	· 실업 급여, 연금 등의 금융 지원 필요
	서로 돌봄 시스템	· 일상관리, 취미 커뮤니티, 협업 시도, 사회적 안전망 공간
	접근성	· 아무리 좋은 정책/프로그램 많아도 결국 최소한의 자발성이 필요하다. 조그만 손 뻗어도 닿을 수 있게
	정책 제안	·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발의하고 이 내용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심의를 진행할 때는 대시민적 투표나 상황적인 접근이 가능한 방법(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화
	정책적 지원	· 민·관 협력 협의체 조직 운영,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 운영, 매개자 육성
	지역 사회 연결 시스템 마련	· 1. 우리 동네, 들어주는 인공지능 있어요(상시) 2. 안녕, 목소리 녹음으로 안부 묻기 시스템
체계적 지원	· 민간 단체의 노력에 더해 관의 적극적 협력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돌연사에 대한 공포를 줄일 수 있다	
행정 인식 변화	· 외로움을 증명해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시스템 변화	
커뮤니티 및 소속감	공동체의 활성화	· 돌봄 접근성 ↑
	기회의 장	·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없이 표류하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참여', '활동' 기회가 있는 장
	니트 컴퍼니	· 고립, 외로움으로 가기 전 니트컴퍼니 우주선에 탑승한다. 바로 나처럼 가자! 숨주먹

커뮤니티 및 소속감	사회적 관계망 형성	·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역 동네 단위 소모임 활성화	· 버스비, 교통비도 부담스러운 시대, 동네에서 걷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간의 소모임을 활성화
	현대 사회에 맞는 동네(공동체) 부활	· 동네라는 소속감, 자연스러운 만남, 안부, 관심 수, 적절한 거리 유지 · 커뮤니티 형성
	개인	·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망 개설(개인) 예: 공동체, 모임, 친구
	공동체	· 공동체 생활
	낮은 문턱의 공간	·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환대하는 공간, 공동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무리를 찾아가자	· 가벼운 독서모임 1회성 운동 모임이라도 같이 있는데서 오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 공동체	· 하고 싶은 문화(취미 등)를 공동체를 통해 공감과 자신감 회복으로 예방함
	소속감/연대	· 능력과 성과 중심 X, 존재 자체로 의미 느낄 수 있는 소속과 관계, 인정받는다는 기분, 느낌
	제도	· 사회적 네트워크 연결망 제도(사회적) 예: 고립, 은둔 청년 프로그램
	조건없는 커뮤니티	· 조건 없는 커뮤니티가 많아져야 한다 (목적, 돈, 자기포장 X)
	초대	· 모임, 커뮤니티, 파티, 원정대, 크루, 동아리, 패밀리 클럽 등 다양한 단체에 초대하여 자신의 소속감, 강점 발견
	취미 생활 다각화	· 등산, 수영, 글쓰기, 지역사회의 다양한 커뮤니티 등
	커뮤니티	· 가볍고 느슨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온·오프라인 모임 · 지속성 있는 커뮤니티
	MBTI 데이트 앱	· 우열이 아닌 선호에 따라,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기
SOS 플랫폼 구축	·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커뮤니티 센터 등), 1) 자발적 커뮤니티 개발 환영 (예: 월 1회, 동네마다 모여라) 2) 정부 지자체 예산 확충 및 서비스 제공. 2-1) 고독예방 부서 개발 · 내적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장(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관계 쌓기 →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관계 이어 가기 → 스스로 고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운 뒤 관계를 통해 고립 벗어나기	

기타	삽질 정신	· 무엇을 바라고 움직이기보다 무엇을 위해 땅을 파는
	직업 상담 코칭	· 심리적 상태 및 성격 분석 반영하여 직업 상담
		· 인간과 삶에 대한 사랑
	성공 경험	·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할 수 있게 돕는 것(예 : 다투컴퍼니, 하루 일과, 루틴 등)
	여행	· 국내 여행 or 해외 여행
	ERROR	· 예방하기 힘들다고 생각함. 나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으로 자신없고 주눅이 들어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것 같기 때문

### 3-3. 순환경제 의제공론장 개요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의제공론장 (3) 순환경제
일시	2023년 9월 21일(목), 19:00~21:00
장소	히브루스 본점
주제	자원순환의 5가지 이야기 1) 의류 순환 2) 유리병 재사용 3) 수리권 4) 물순환 5)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석인원	총 49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 3-3. 순환경제 의제공론장 자세히 보기

#### 순환경제

#### 1) 의류 순환(섬유 재활용, 새사용 등)

Q. 사람들은(나는) 옷을 사놓고 왜 입지 않을까?	
내용	
· 새로운 옷을 쉽게 또 사면 되니까	
· 충동구매	
· 유행이 너무 빠르게 흘러감	
· 용도에 맞지 않거나 구입시 충동구매	
· 옷을 구입할 때 필요에 의한 구매가 아닌 감정에 의한 구매를 하기 때문이다	
· 멋이 없어져서	
· 더 이상 나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져서	

Q. 입지 않는 옷을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		
분류	키워드	내용
기부/공유		· 나는 안(못)입지만 입을 수 있는 사람과 공유
		· 필요한 사람 주기
		· 입지 않는 옷을 단체에 기부
기부하는 방법 개선		· 기부행사에 참여한다
		· 기부 or 나눔
리폼	다시입는 문화	· 새것 말고 다시 입는것도 괜찮아요
		· 리폼을 한다거나 이 옷을 왜 입지 않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한다

인지/문화/ 정보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번 더 구입시 고민</li> <li>· 의류순환 교육</li> </ul>
<b>Q. 입지 않는 옷을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을까?</b>	
<b>키워드</b>	<b>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행사시 의류(티셔츠) 제작 억제(잘 입지 않음)</li> <li>· 의류 순환을 위한 MD/큐레이션 중요</li> <li>· 우리동네 공유옷장</li> <li>· 현수막을 버려지는 직물로 만들기</li> <li>· 의류수거함네트프론 기계(포인트 리워드)</li> </ul>
서울시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옷을 어떻게 분리배출하면 되는지 안내문 등 필요</li> <li>· 행사티셔츠, 기념티셔츠 최대한 만들지 않기</li> </ul>

**2) 유리병 재사용**

<b>Q. 시민들이 유리병을 재사용 하는데 걸림돌이 있다면?</b>	
<b>키워드</b>	<b>내용</b>
유통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 변질, 위생적 문제 등의 어려움</li> </ul>
유리의 불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깨지고</li> <li>· 모으기 어렵다(보관) : 비규격</li> <li>· 무겁다</li> <li>· 집에 두고 사용하기 좋다</li> <li>· 무거운 중량, 파손에 따른 부상 우려, 불편함 및 고비용(생산)에 따른 기피현상 심화</li> <li>· 유통, 수거의 문제</li> <li>· 위생적이지 않다는 소비자의 생각</li> <li>· 재사용, 재활용의 개념 인식 부재</li> </ul>
제도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금제</li> <li>· 환경친화적 용기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다(제도적 홍보X)</li> </ul>
분리수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다</li> </ul>

시민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이 없음(보증금 반환, 규격통일, 유통망 등)</li> <li>· 하는 곳이 거의 없어서 선택이 어려움</li> <li>· 다품종 병 규격화 &amp; 보증금제 도입</li> <li>· EU 10% 의무화</li> </ul>
제도 도입 관점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문제보다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정책 진행</li> </ul>
재사용 가능한 제품이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주, 맥주, 청량음료 외 선택가능한 제품이 없다</li> <li>· 유리병 재사용하는 기업이 없다(반용기 보증금 참여 주류업체만 유리병 재사용)</li> </ul>

<b>Q. 시민들이 유리병 재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b>		
<b>분류</b>	<b>키워드</b>	<b>내용</b>
인식전환	유리병 재사용의 환경적 의미 캠페인	· 온실가스 ↓, 폐기물 ↓, 미세플라스틱 ↓, 환경호르몬 ↓
	재사용 시민 캠페인	
	순환경제(순환사회) (달인고리)로의 전환을 위한 정신적 준비	· 정부, 시민, 기업 인식전환 교육
	제도적, 정책적 방향 수립(법제화등) 등 인식의 전환(국가, 국민)	· 경제성에 입각한 소비패턴의 가치구매 방향으로 전환
인프라 구축	재활용보다 재사용 개념	· 홍보 및 교육 확대 → 캠페인
	빈병 회수 거점	· 편의점, 수거점 연대
	가볍고 내구성 강한 유리병	
	소형 세척장비	· 국내 수요 X
	인프라 구축	· 세척시설 · 수거시스템(수거망, 수거거점)
	소량 규격화 고급화	

<b>규제</b>	<b>정부정책 채택</b>	· 1회용 포장재 규제 강화 & 다회용 포장재에 대한 인센티브
	<b>참여기업 확대</b>	· 빈용기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확대
	<b>유리병 재사용 시스템</b>	· 재사용 의무 사용량 인센티브
		· 플라스틱세, 탄소세 상향 부과(효과있는 수준)
	<b>법적인 강압</b>	· 규격화, 내구성 소
	<b>경제적인 이윤</b>	· 인센티브 or 재활용보단 재사용 독려/ 유리병 유가성 소

**3) 수리권**

Q. 사람들은 수리하는 것보다 버리는 선택을 왜 할까?	
키워드	내용
사람들은(나는) 수리하는 것보다 버리는 선택?	· 신경써서 수리 맡기고 직접 수리하는 것보다 버리는게 훨씬 간편하니까
번거로움	· 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너무 쉽고 빠르는데 수리를 받기 위해 수리비를 알아보고 A/S 센터를 찾아가고 수리 받을 때 까지 기다리고 수리가 실패할 경우까지 감수해야 함. 모든 과정이 너무 번거롭다.
소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	·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 수리하는 곳 찾기가 힘들어서 · 수리에 필요한 정보와 능력이 부족하다 · 수리할 곳을 찾기 힘들다 · 수리 비용이 새 제품보다 비싼 경우
거리감	· 수리의 필요성을 모른다 · 최신제품을 갖고싶은 욕망 때문에
신뢰	· 개인정보 · 낯아서
가성비	·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게 비용적으로 적게 들기 때문에
수리가 소용 없을 정도로 저품질	· 물건을 수리나 수선을 한다고 해도 금방 다시 고장날 정도로 물건의 내구성, 품질이 낮게 생산됨
기회비용(특히 시간)	· 신제품은 인생의 유한한 시간을 절약해준다. 물질과 시간을 맞바꿀 수 있다.

	· 높은비용
	· 불편
	· 낯아서
	· 신뢰 부재
	· 수리하는 비용, 시간, 고생보다 새로 사는것이 코스트가 낮아서
<b>경제적 이득 거의 없음</b>	· 신제품은 할인 이벤트 등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루트가 많지만 수리는 새 물건을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 수리, 어디로 찾아가야 하나요?
	· 부품이 없어요
	· 저품질 대량생산으로 저비용화가 되어서

Q. 사람들이 물건을 수리해서 사용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은?	
키워드	내용
수리 외 택한 모든 방법은 더 큰 비용지출	· 경제적 소비, 과연 실용적인가, 경제관념이 가장 중요, 오래쓰는 문화의식
비싸지만 품질 좋은 물건 생산	· 세 제품을 구매하는데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이 높아져야 중고거래나 수리, 수선해서 물건을 오래 쓰고 싶다는 욕구가 커질것. 품질이 좋아야 수리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
수리할인	· 수리를 저렴하게? · 오래쓰는 문화의식
수리문화형성	· 수리해서 쓰는게 당연한 사회 되도록(SNS, 정부에서 이슈화, 챌린지, 인증샷이나 프로그램 등 후원)
공감의 확산	· 고쳐서 사용할 때 느끼는 희열 '뿌듯함' · 어린시절부터 수리에 대한 당연한 인식 부여(전파사/구두방/수선집)
사회적 성숙도	· 없는 것에 익숙한 삶
물건에 애착이 생기도록 스토리 부여	· 설화, 도깨비, 부엌신 · 물건에 대한 주체성을 가져올것 · 수리경험 확대 · 물건 구매시 수리에 대한 친절한 안내, 규약 → 유튜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성비 있는 수리비용</li> <li>· 수리하고픈 물건들 수리가능한 거점장소 안내 ex)백화점 마트 등등</li> </ul>
Q. 수리권을 보장/확대하기 위해 어떤 인프라가 더 필요?	
키워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별로 인프라 공모(어디서, 무엇을, 어떻게)</li> <li>· 공무원 교육</li> <li>· 지자체 → 각 아파트별로 구축한 아이디어 공모 후 지원</li> </ul>
수리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 서울시 월세지원</li> <li>· 수리, 수선 지원금제도 운영</li> </ul>
종류별 중고, 매매 플랫폼(매입 → 직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간에서 수리할 책임을 다하고, 이를 보증해야 하는 플랫폼 기업을 통해 현 제품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li> <li>· 강사진 제공 → 자가수리 모임</li> <li>· 수리업체, 단체 → 자가수리 경험공간 제공</li> <li>· 공익광고</li> </ul>
구독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렌탈하면 수리도 해준다(사용비도 낮아진다는 장점)</li> <li>· 오래쓰면 기업도 이득인 구조</li> </ul>
플랫폼 경쟁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수리 및 재활용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이미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기업이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도록</li> </ul>
제도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정거장 만들면 인센티브 제도 (ex-재활용 정거장)</li> </ul>
수리복합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공공수리점(수리에 대한 복합센터) 개설(지역마다 최소한 수리가 가능하고 수리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센터 필요)</li> <li>· 수리전문가 양성(직업화)</li> <li>· 지도자 양성(수리인력 = 준전문가) → 각 지자체 및 학교 파견</li> <li>· 준전문가 양성 및 파견</li> </ul>
엔지니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업자들을 알리자!</li> <li>· 세대교체(수리업자 대부분 노년)</li> <li>· 일자리 창출(기술이 있으면 퇴직도 없다)</li> <li>· 주민센터마다 수리교육 클래스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공구를 다루는 방법 등을 학교에서부터 기본소양으로 가르쳐야 한다</li> <li>· 수리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많은 사람이 수리에 대해 인식하고 알 수 있게)</li> <li>· 수리할 수 있는 교육(아파트 커뮤니티, 주민센터, 복지관)</li> <li>· 주민센터 수리장비대여, 교육도 함께, 수리맵 운영(이 모든 정보가 담긴 공유허브 홍보)</li> </ul>
기초수리기술 교육	
수리촉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하고 싶은 사람, 수리할 사람, 수리하고 싶은 물건, 부품 다 모여</li> <li>· 의무A/S 기간 늘리도록 법 제정</li> <li>· 국가에서 수리 등급 제도 운영</li> </ul>

#### 4) 물순환

Q. 성공적인 물순환 확산이란?	
키워드	내용
드므(옛 궁궐의 빗물 소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조상의 지혜, 준비, 대비</li> <li>· 흐르는 듯 멈춤</li> <li>· 빗물의 소중함을 알고 잘 흐르고 고이게 한다. 비-강-바다-수증기</li> </ul>
물은 고이면 썩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물이 썩는 3가지 원인(햇빛E, 양분, 온도)</li> <li>· 2. 고이면 3가지가 물에 생명을 만들고</li> <li>· 3. 순환하지 않으면 생명은 죽어 썩는다</li> <li>· 4.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물을 순환하자</li> </ul>
물순환=물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을 키우는 것</li> <li>1. 정화</li> <li>2. 증발</li> <li>3. 에너지흡수</li> <li>· 물을 흘려보내서 낭비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 - 빗물정원(WaterGarden): 마당 또는 옥상 등에 빗물이 고여서 필터되며 천천히 흘러내려가게 함</li> </ul>
버려지는 빗물을 자원으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순환의 기본은 빗물 관리부터</li> <li>· 인식개선, 활용폭넓게</li> </ul>
물순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빗물저금통, 도시, 옥상, 지하, 재이용, 재활용, 필터정화</li> </ul>
Green Stree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stead of strom water going straight to drains Strom water capture dinrain gardens along streetsand public spaces</li> <li>· (스트롬 물이 배수구로 곧장 가는 대신 스트롬 물은 도로와 공공장소를 따라 있는 빗물 정원에서 포획된다)</li> </ul>

<b>Valu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ater less polluted(덜 오염된 물)</li> <li>· Less flash flooding(플래시, 범람 감소)</li> <li>· More ground water(더 많은 지하수)</li> <li>· Beatification of street</li> <li>· Traffic calming(교통 정리)</li> </ul>
--------------	---

**Q. 성공적인 물순환 확산은 왜 필요한가요?**

키워드	내용
	·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
<b>기후위기 완화 물순환 회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불방지효과</li> <li>· 지하수보충</li> <li>· 식생개선</li> </ul>
<b>제한된 양</b>	· 물을 낭비하면 물부족 상황이 되기 때문
<b>혈액순환</b>	· 기후위기의 시발점이 물순환
<b>물=에너지</b>	· 고대 에너지 → 인간
<b>순환 = 命</b>	· 물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물 없는 생명은 없다(기후위기와 밀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 → 지구살리기 → 인류 → 삶</li> <li>· 농업 → 물이 無 → 生 → 살리기 → 순환</li> <li>· 빗물 = 수돗물 no = 순환 관점 → 순환 → 농업(食) → 생명</li> </ul>
<b>숨</b>	· 지속가능한 숨(삶+숨+심)
<b>Water on Earth</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nly ,1% freshwater available for human use</li> <li>· Recycling &amp; conserving our precious fresh water is important.</li> <li>· (단, 1%의 담수를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담수를 재활용하고 보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li> </ul>

**Q. 성공적인 물순환 활동 확산에 걸림돌이 있다면?**

분류	키워드	내용
<b>인식</b>		· 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 물순환 위기 불감증
		· 물이 가진 포용력 → 인식전환
		· 편리함을 위한 과소비
		· 버려지는 물은 더럽다는 인식

<b>인식</b>	<b>인식부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하루 생활에서 지구의 물부족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음. 늘, 그 생각을 하는 생활화가 되도록 다양한 쉬운 홍보 필요</li> </ul>
<b>밥</b>		· 돈이 되지 않아서, 돈이 많이 들어서(물의도시O, 물순환도시X)
	<b>물값(수도물값) 너무 낮아서</b>	· 물이 너무 많아 → 필요성 부족. 수도보급률 97%(집안에 수도꼭지 몇개?)
	<b>물부족국가</b>	· 물자원 정책 부재
		· 물순환의 가치 측정 X
	<b>with RainGarden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gineering - slopes, drainage(엔지니어링 - 경사, 배수)</li> <li>· Space-it is hard to find enough space in crowded cities(혼잡한 도시에서 충분한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li> <li>· Maintenance-longterm, continuous care(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li> <li>· Public perception-people don't like standing water(대중의 인식-사람들은 물이 고여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li> </ul>
<b>환경오염</b>	<b>逆</b>	· 역행하는 것들

**Q. 성공적인 물순환 활동 확산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

키워드	내용
	· 건전한 물순환 회복이 '기후위기' 완화 도움 인식개선운동 제안
	· 물순환 관련 장소 견학 프로그램(초, 중)
	·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도록 물모이만들기 시민운동 제안
	· 물순환에 대한 패밀리게임(보드게임) 개발
	· 물그릇통장
	· 둔덕 만들어 이끼 키우기, 탄소흡수원으로 인식하기
	· 플로깅
<b>부정적 인식, 정책 변화</b>	· 어린이집에서 대학교까지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 시민활동
<b>실제 활용</b>	· 빗물맥주, 빗물녹차 등 블라인드 테스트
<b>인식전환</b>	· 식물을 키워 물순환 가속
	· 사용수 일상 활용하기
<b>아하 모먼트 경험</b>	· 물순환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성공경험

	· 새 학교, 도시재생 → 정책, 조례, 공교육(강사)
<b>1. Reward based campaigns</b>	· People who participate get rebates and recognition · (참여한 사람은 리베이트와 인정을 받습니다)
<b>2. Policy</b>	· Water quality fee to fund water improvement projects people who do projects can get credit and pay less(수질개선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수질관리비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용을 얻고 돈을 덜 지불할 수 있다)
<b>3. Many small scale projects</b>	· mimic how nature treats water at the source · (자연이 수원에서 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흉내내다)

**5) 일회용컵 보증금제**

**Q. 성공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란**

키워드	내용
누락없이	· 사용되는 모든 1회용컵에 '누락없이 보증금'이 붙고, '누락없이 회수'되고 누락없이 재활용 되는것. + 1회용컵에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을 때 소비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수용	· 카페, 소비자 반납
결과	· 다회용, 재활용
텀블러를 소지하는 습관	· 다회용의 장점을 느끼고 일회용품 문제를 인식하는 시민 수
컵(용기)의 순환(재사용)	· 자원 낭비의 최소화를 위한 컵 순환 시키기 ·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방향성	·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화장품 용기, 햇반 용기, 우유팩 등 우리 사회가 자원순환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용이 끝난 컵을 잘 모아서 원료로 사용하기(투기X, 회수 수)

**Q. 성공적인 보증금제 시행에 걸림돌이 있다면?**

키워드	내용
기업	· 손이 많이감, 수익이 줄어든다
소비자	· 습관이 되지 않음, 불편하고 싶지 않음
정부	· 정부차원에서 시행(지자체 자율시행이라니!!!!)
카페	· 비용부담 수(라벨, 반환), 수익감소(소비자 이탈)

<b>텀블러 소지의 걸림돌</b>	· 단지 귀찮아서 + 일회용 takeout이 있으니까
<b>일회용 컵 보증제 정책이 전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b>	· 지역마다 상황과 처한 현실이 다른데 왜 똑같이 적용해야해? 내실을 다져서 인구가 많은 지역을 2025년까지 천천히 하는게 맞지 않을까?
<b>귀차니즘(인식과 실천 문제)</b>	· 평소에 컵을 지참하는것도, 구매한(이용한) 카페가 아니라 다른곳에라도 직접 가서 반납해야 된다는 것도 바쁜 현대사회에선 어려울 수있고, 귀찮다는 생각이 더 강한것 같음 · 인식과 태도의 간극 · 정부의 정책이행의지 부족
<b>투기</b>	· 일회용컵이 너무 많이 버려져
<b>순바닥 뒤집기</b>	· 시민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음. 기업들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함.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최선의 정책을 내야함. 그러나 잦은 반복으로 제도 자체의 신뢰성 ↓

**Q. 보증금제 시행, 시민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

키워드	내용
	· 적극적인 의사표현 · 자발적 보균자 · Attack
<b>호기심</b>	· 이게뭐지? · 가치확산 · 행동 · 내 옆사람 한명
<b>가까운사람부터 살펴보기</b>	· 나는 관심자이므로 주변에 있는 비관심자를 대상으로 살펴봄과 도와주기. 컵을 선물하며 한번 대신 설거지 해준다거나...그런 행동을 인식시키며 다회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 3-4. 보행권 의제공론장 개요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의제공론장 (4) 보행권
일시	2023년 10월 5일(목), 19:00~21:00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 강의실>
주제	그래도 걷는 사람
참석인원	총 33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 3-4. 보행권 의제공론장 자세히 보기

보행권	
보행권 침해 순간	
키워드	내용
발달 장애인의 보행권	· 발달 장애의 루틴 강박 행동이 보행자 안전사고와 연관되는 경우
인도 및 차도 턱 안전사고	· 인도-차도 사이 턱이 보행자에게 위협이 됨
횡단보도 시간 부족	· 걸음이 느린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시간이 부족함
차도와 인도의 분리가 없어요!	· 동네길에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없어서 차도와 인도의 분리가 필요해요!
보행자 우선!	· 보행자가 먼저인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불법주차 NONO!	· 경의선 숲길 근처에 불법 주차가 많아서 골목길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접근 가능한 곳 데이터가 적음	· 휠체어로 외출 의욕 저하
휠체어 접근 가능 건물 비중 적음	· 예: 성수지역 매장중 단 13% 접근 가능
보도블록 파손	· 보도블록 노후 파손 → 휠체어에 위협
점자 블록 오류	· 시각장애인 점자 블록 오류가 많아 위험
키펴드, 자전거 길방치	· 교통 약자 보행권 침해
자동차 중심	· 보행자 중심X
주차 문제	· 불법 주차와 자동차 증가로 인한 사고
사각 지대	· 차량, 사람 충돌 위험
바로 옆 뺑~	· 전동 키펴드, 자전거 예고도 없이 인도, 공원 길 지나갈 때
좁은 길 어깨빵	· 특히 출퇴근 붐비는 시간에
정지선, 신호위반	· 정지선, 신호 위반 (횡단보도 지날 때), 치고 지나갈 듯 위협적인 차량
전동 키펴드 도로 주차	· 보행로에 전동 키펴드 주차되어 있어 길이 없다
주차된 차들로 도로 X	·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아서 걸기가 어려웠을 때
자전거 도로 불법 주차	· 자전거 도로를 차, 오토바이 등이 불법 주차하고 있을 때

자전거 도로 없음	· 자전거 도로 없어서 보행로 및 차로 둘 다 가기 어려울 때
보행도로 없을 때	· 차도만 있고, 보행차로 없을 때
좁은 인도	· 사람 1명 걸기에도 좁은 인도, 전봇대 등으로 도로로 내려서 걸어야 할 때 · 보행로는 등산로나 하천길 등 별도로 조성된 곳에서만 이뤄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행정 - 어디서든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 -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음	· 중학교와 초등학교로 가는 주 통학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도만 존재할 뿐 인도(보행로)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중첩돼 있음	· 전체 폭이 좁은데다 2개 목적이 혼재돼 있어 상대적으로 갈등 및 사고 위험이 존재해요
휴식 공간 없음	· 아무리 걸어도 앉을 벤치가 없음
자전거 도로 불법 주차	· 자전거도로인데 차가 서 있거나 오토바이가 다닐 때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 이면도로 한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
상자들이 보행로 사용	
횡단보도 없을 때	· 8차선 도로, 맞은편으로 건너가고 싶은 때 횡단보도가 한참 가야 있을 때
주거지 차량 통행	· 어린이 노약자에게 특히 위험, 대로막 차량 통행 할 때
횡단보도 위에 차 있을 때	· 꼬리 물기 차량 등 초록불인데 횡단보도에 차가 딱하니 있을 때 너무 짜증남
보행자 혜택 부족	· 자동차 : 유류세 감면, 보조금 등 혜택 왕 많음. 보행자, 대중교통 이용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보행로, 자전거 도로 <차로	· 안그래도 차도는 3-4차선씩 넓게 있는데 좁은 보행로에서 자전거 보행자 공용 도로까지 다 밀어넣어 놔줄 때
민원으로 인한 벤치, 보행권 취소	
과도한 교통시설	· 통학로에 너무 많은 펜스 설치
길 위에 장애물이 많아요	· 노점, 간판과 물건들로 가뜩이나 좁은 공간이 더 좁아요
차(오토바이)가 이겨요	· 자동차와 마주하면 제가 갓길로 붙어서 비켜섭니다
보도 부재	· 보도가 아예 없는 길을 걸으며 앞뒤로 차를 조심 해야할 때
인도에 탈 것이 올라와요	· 인도 위로 걷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비켜서래요
인도가 없어요	· 인도가 없어 갓길로 걷는데 위험해요
거리 벤치 부재	· 보행자는 걷다가 앉기도 해야 하는데, 앉을 곳이 없음

은행 나무 열매	·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걷기 힘들어요
전동 킥보드 & 자전거	· 인도 주차
도로변 주차장	· 자동차에 둘러싸여 위험, 주차된 차와 주행 차량 사이에 끼어 위험
인도, 도로 상습 침수	· 비올 때마다 물에 잠김
인도 위 개구리 주차	· 불법이 당당하게 용인되는 현실. 자동차, 전동킥보드가 주인인 도로 · 인도는 중간에 끊기거나 더 먼길로 돌아가야 할 때 힘들어요
보도 연속성 부재	· 자동차길은 연결성 ㅅ, 보도는 끊기고 없어서 단절. 보행권 < 자동차권
인도의 부재	· 자동차 차선만 그려져 있는 도로, 사람은 어디로 걸어야 할지?
(통학로) 녹색 어머니회 활동	· 등교까지 안전을 챙기는 대한민국 "극한 직업" 학부모 모습
인도 주차	· 인도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내가 차도로 내려가 돌아서 걸어야 했을 때
보도 위 차량	· 건물 내(앞)에 주차하려고 보도로 올라와서 주행하는 차를 볼 때
과도한 펜스	· 마치 우리에게 갇힌 동물이 된 기분, 경로 선택 제한...
보차 혼용	· 보행로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길에서 지나가는 차를 내가 기다려야 할 때
자동차 과속	·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과속, 위험, 사고 우려...
자동차 우선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나 길에서 차들이 멈추지 않고 내가 기다려야 할 때
6개의 감각을 곤두세워 걸을 때	· 차나 다른 무언가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 나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긴장한 상태로 걸을 때
도보를 찾을 때	· 빌라 밀집 지역에서는 도보로 보이는 공간 또는 암묵적으로 합의된 공간을 도보 삼아 걷게 됩니다
보행권이라는 말을 몰랐을 때	·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행권이라는 말을 모르고, 차를 피해가며 다니는 것 같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	· 보도 위에 주정차한 차량
불량한 보도 포장	· 울퉁 불퉁 성의 없게 만든 보도
보도와 자전거 도로 혼용	· 보도 위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
보행 중 흡연	· 보행로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차량 속도(과속)	· 운행하는 차량이 빠르게 다가올 때
불법 적치물	· 인도에 불법 적치물 때문에 보행이 어려움

도로 환경 불편	· 도로 (인도, 보차혼용 도로) 의 파손등이 있다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보행에 위협을 느낄 때  · 아이와(혹은 어른이나 반려동물과) 함께 걷고 있는데, 뒤에서 바퀴달린 이동수단의 주인들이 빙빙거리며 위협했을 때  · 횡단보도를 휩 그냥 지나치는 두 바퀴 이동수단들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데)
이면도로, 보차혼용로의 탈 것 우선 문화	
민간 사유지, 공개 공지 보도의 울퉁불퉁한 보도	
계단	· 가게 건물로 들어가는 데 계단으로 이뤄져 있음  · 비오는 날 도로에서 물이 튈 때(웅덩이 물 고여) 비올 때 도로에서 걷기가 어려워요
인도에 차량이 올라와 있어요	· 걸어가는데 방해되는 차량이 많아요
차량 위주로 짜여진 '법'과 '제도'	· 보험, 시설 등 대부분의 인프라가 차량 위주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우선일 때	· 보행자의 공간이 아예 없고, 차량이 점유율이 높음
노상주차장	· 길을 점유한 노상 주차장으로 인해 걷기도 불편하다
상권	· 상가가 있는 보행로가 없는 도로에 보행로 제안시 상가에서 반대
인도 확보 안됨	· 인도에 차량이 올라올 때, 모든 설치물(전신주, 가로등) 이 도로가 아닌 인도에 설치된다
차량 우선	· 차량이랑 사람이 만나면 늘 사람이 피한다
걷는 즐거움이 없다	· 주택가의 경우 1층이 주택이거나 주차장이라서 걷는 재미가 없다

**보행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키워드	내용
턱 제거 인도, 도로 제작	· 자동차보다 보행자를 배려하는 인도 도로 제작
발달장애 주변인의 이해화 논의	· 발달 장애인의 행동에 대한 주변인의 인식 및 안전에 대한 논의 필요
횡단보도 안전 기술과 제도	·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정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기술, 제도 필요
보행권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 차도와 인도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 표식이 필요해요

불법 주차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 불법주차의 이유를 주차비를 아끼기 위함이 크다고 생각됨
IOT 기술 활용	· 예 : 카드를 찍으면 신호등 시간 ↑
편의증진법개정	· 시행령에서 90% 이상의 건물 편의시설 설치 면제
접근 가능 데이터 대량 수집	· 네이버/카카오맵 접근 가능 장소 기능 넣도록 독려
구단위의 조례 제정	· 건물주가 개축 증축, 리모델링 시 경사로 설치하면 인센티브  · 시민들이 '스마트서울 신고'앱으로 쓰도록 독려 (도로 파손 신고)  · 점자블록 검수를 장애당사자가 해야 함  · 인플루언서 맛집 소개 중 장애 접근성 소개  · 키보드/자전거 방지 시민신고제도 강화 + (비장애인) 휠체어 경험 기반 교육  · 양보 문화가 있는 혼재된 도로  · 불법 주차, 개구리 주차 금지
사람(생명) 존중	· 차보다 사람과 동물 우선하는 태도, 제도
넉지	· 안전 디자인 (교통 약자 우선)
도로(차로) 다이어트	· 차도보다 인도 (보행로) 확대
안전지도	· 통학로 안전지도 작성을 통한 예방 시스템 모색
고발 운동	· 교통 민원, 거부사유 밝히지 않을 시 직무유기 형사고발 (민원 처리법)
주차장법 개정	· 주차장 없는 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주차장 지하화	· 예 : 주택 단지를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율주행 공유차량	· 자율주행 : 안정성 ↑, 공유차량 : 주차장 필요 X
장애인 연속 보행권	· 보행 - 택시 - 보행 : 기사 동행 서비스 (퍼스트마일 - 라스트마일)  · 장애인 전용 택시의 비용이 너무 비쌈
버스 촘촘히	· 증차, 노선 개편 등 자전거 키보드 대신 버스 애용하기
키보드 단속 일원화	· 공원 길 키보드는 (인도 X), 행정 공무원 단속 대상 (경찰이 모두 전담)  · 전동 키보드 주차 관리 강화
전동 키보드 규제	
자전거 이용자 보호	

자전거 도로 확산	· 사람은 보행도로, 차는 차도로,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해외사례 도입	· 15분 도시
벤치 설치	· 폭 3M 이상 인도에 간격 3m로 설치 의무화
차도와 보행로 구분	· 주택가의 주차 공간 부족문제를 차도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보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행 환경 개선 예산 확보	· 보행 환경 개선 예산 확보 및 이를 요구하는 노력 →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적극적 수용
자동차 이용 불편하게 만들기	· 도로 다이어트로 차도 줄이고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로 전환
차로 좁히고 인도폭 확보	· 최소 폭 2m 이상 확보된 인도
자동차 이용자 인식 개선	· 도로는 바퀴달린 모든 것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 필요. 도시의 중심은 차가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주차장 설치 (주거지)	· 저층 주거지 주차장 설치가 필요
보행자 우선 인식	
이면도로 차량진입 제한	· 일방으로 돌리고 도로폭 면적 50%이하 차량 이동을 위한 공간
운전자 인식	· 운전자의 보행자 우선 양보 인식
공용 도로 만들기	· 자전거 외 PM 등 새로운 탈 것이 다니는 도로 만들기
자전거 도로 확충	· 차로 다이어트 yes, 자전거 도로 다이어트 NO
주차 시스템 개선	· 공용 주차장 확보, 차고지 등록제 등
이륜차 주차장	· 킥보드 & 자전거 주차장 / 거치대 만들기
은행 열매 제거	· 은행 열매가 익기 전에 미리 수확/제거 하면 안되나요?
도로 위계 구조화 (도로 공간의 확보)	· 현재 8차선 → 이면 도로 연결, 교통 흐름
우천시 인도 상황 모니터링	
대중교통,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자동차보다 더 편하게 만들기
밀도의 관리	· 도시 밀도, 도시 내 차량 대수 감축
보행도로 우선 계획	· 도로 계획 시 보행도로가 우선! 보행자가 편하게 계획
등하교길 차없는 시간	· 8시 30분 ~9시까지 학교 주변 도로 "통과 금지"(인식 변화)
주차 금지	· 인도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펜스를 치거나 주차 단속을 강화?
인식 변화 & 신고 (행동)	· 1. 사회적 인식 변화 (장기) 2. 주정차 신고 앱으로 그 자리에서 '응징'

보행자 우선	· 운전자 포함 사람들이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차도, 보도 분리	· 차도랑 보도랑 분리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보도 우선	· 길을 만들 때 자동차 말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우선시 해라
보행자 전용	· 보도는 보행자 전용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보행 울타리 만들기	· 단순히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보행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 만들기
보행자 우선 설정	· 차가 다니지 않는 공간 만들기 or 차가 다니는 시간 정하기. 보행하는 시간(공간)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기
보행권 알리기	· 안전한 보행이 권리임을 알려 함께 걷고 싶은 걸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안전	· 자동차로부터 안전 보장
단속	· 보도 적치물, 주정차 흡연 등 보행권 침해 단속
평평한 보도	· 아~주 평평한 보도 포장
걷는 사람 연대	· 걷는 사람이 많아야 함
동네 문화	· 동네에 걸어서 갈 곳이 많아서 많이 걸길
안전 속도 준수	· 각 도로에 맞는 운행(차) 속도 준수
도로 불법점거 지양	· 보행 및 보행 약자를 배려하는 인식 개선 (물건 치우기, 적치물 제거)
도로 정비	· 도로 정비를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주차장 확대	· 주차자리 (주차장) 확보
	· 마음의 여유가 있는(마음 부자들이 많은) 사람이 많아지기를. 자기 가족이라 생각해서 배려해 주시길...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
	· 잠깐만 안장(의자)에서 내려서 걸어가주시길... 약간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자체 보행로 이면도로 교통 안전 관련 용역 등 투명하게 공개
	· 보도 관련 더 구속력 강한 준칙, 법령 (민간 사유지 일괄 적용)
	· 도시 내 생활 공간에서 자동차의 공간을 조금씩 줄이자
	· 대만에 가면 이륜차 전용로가 있던데....
대안	· 절충안 마련 및 제안
관기	· 지칠 줄 모르는 관심과 요청

보행권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	· 국도와 같은 도로에서 보행 데크를 높게 올려서 기존의 도로를 위치한 상태에서 인도 확충!
점자 도로의 확충 필요	· 점자 도로의 부재 → 확충 필요. 대부분의 도로에서 점자 도로가 없어요
안전한 인도의 확보	· 폭.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사람이 우선인 문화 (법규)	· 언제나 사람이 먼저 존중받는 법률, 문화
클락션 체감하기	· 클락션을 보행자에게 울리는 경우가 많음. 차량 내부에서도 클락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어떨지...
도로위 횡단존 개설	· 횡단보도라는 좁은 공간이 아니라 좀 더 넓게 횡단해도 되는 존을 개설
길 위의 주인은 '사람'이라는 인식 확대	· 횡단보도와 인도만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함

**보행권 활동 제안**

키워드	내용
지하철 엘리베이터 실시간 고장지도 제작	· 엘리베이터 고장 정보, 시민 제보기반 지도 제작 + 노선 별로 처리율 / 처리시간 데이터 축적 & 추후 엘베 관리 계획 반영
공유 자전거 키펠드 주차관리 강화	· 공유 자전거나 키펠드로 따릉이 처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or 주차 불가지역을 만들어서 그곳에 두고 가면 패널티가 생기도록 하는 정책이 생겼으면 좋겠다
차도 폭 줄이고 인도 넓히기	·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차도 다이어트
서울 접근성 지도 빅데이터 구축	· open api 형태로 map 회사(+map을 이용해 비즈니스하는 회사)에게 제공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약자를 위한 IOT 기술 활용	· 노인이나 약자들이 지나갈 때 시간을 늘려주는 기술을 적용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신호등이 제어가 되니깐 기술 접목 가능성 ↑
교통 약자를 위한 사물인터넷 도입	· 횡단보도 횡단할 때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파란불 (보행) 유지
보행 관련 배상책임 보험 알림	· 시민들이 몰라서 보험금 청구 X (혹은 소해사정 필요) 관리주체 예방 유인 ↑
장애아동이 직접 만드는 보행지도	· 장애아동과 함께 만드는 보행지도 경사실, 사각지대, 눈에 띄는 표지판, 이해가 잘 되는 길 안내판 등등 찾아보기. 놀이터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되어있을까
수도권 신도시 개발	· 서울 인구 분산(교통, 보행 인구 ↓)
장애 보행, 접근 친화 가게 팻말	· 장애 보행 친화 가게 팻말 설치. 장애인이 접근하기 좋은 가게임을 알림. 홍보 효과

폭 3M 이상 보행로(인도)에 반드시 벤치 설치 의무화	· 사회적 고립감 예방, 범죄 감소
보행로, 자전거 도로 연결지도	· 안전지도처럼 보행로 /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끊어지거나 사라지는 곳을 조사해 지도에 표시해보고, 문제가 되는 지점 정비하기
턱 없는 보행로 만들기	
차로를 줄이고 인도 자전거도로로	· 차로를 줄이고 인도폭 확보,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도로 신설
보행자가 제일 위험하니 기록	· 자동차 블랙박스 → 욕먹는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사실 보행자에게는 블랙박스가 없음. 보행로가 불편을 드러낼 필요성 ( 예 : 횡단보도에서 죽고 싶지 않아)
민원을 쉽게 할 수 있는 어플과 방법(캠페인)	
	· 전동 키펠드 이용시 지전된 장소로(주차장 or 정류장)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보도 등 보행로 방치 or 보행로 주행 금지 위해)
도로 다이어트	· 차도 폭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대신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유아차, 휠체어 이용자 구축하려는 전환. 구체적 실천이 필요 (자치구별 조례, 법규화 등)
보행자 자전거 축제	· 도시의 도로를 사와 자전거의 길로
사람이 먼저다	· 보행자, 사람 우선 인식 캠페인
모두의 주차장(앱) → 모두의 길(앱) 출시	· 공공공간이 도로를 합법적으로 사유화하는 주차장(앱)이 있듯이 (자동차가 주인인 앱), 그 반대로 모두가 안전하고 머물 수 있는 '작은 축제' 또는 '걷고 싶은 차없는 길' 정보 제공
차없는 가구 혜택 주기	· 운행 적은 달 point 적립
끊긴 보도 연결	
점심 먹고 걷고 싶 수 있는 길 캠페인 홍보	· 청계천 밖에 없는 산책로. 산책 서울 만들어요
차 없는 거리 만들기	· 차량 진입을 막은 길들이 많아져서 차들이 불편해서 못 다니게, 보행 분화가 더 확산 되게
거주자 우선 주차 폐지	
강아지 감시단	· 광각 CCTV 카메라 달고 동네 산책으로 불법주차 단속 (전수 영상 처리)
불법주차 단속강화	· 벌금 높이기
자동차 친화 정책 그만	· 도로를 계속 만들어서 차량 사용이 보행이나 대중교통보다 더 편리하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친화적인 정책 & 사업 좀 그만!
녹색불 중심 보행 신호체계	· 기본이 빨간불이 아니라 녹색불인 보행 신호등

<b>차없는 거리 만들기</b>	· 차없는 거리를 늘려서 보행 안전과 보행자 우선의 제도 개선
<b>도보에 전동킥보드, 자전거 금지</b>	·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용 도로를 만들거나 척도를 이용해 도보에는 탈 것이 다닐 수 없게 함 (예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전거 도로)
<b>시민 참여 보도 시공 공모전</b>	· 평평하고 잘 만든 보도를 시민들의 투표로 시상하기
<b>보행 투어 상품 개발</b>	· 걷기 좋은 거리 투어 상품 개발 (예 : 북촌 한옥마을 - 경복궁 - 청와대)
<b>보행권 캠페인</b>	· 운전자도 곧 보행자!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b>자동차 횡수 제한 보상</b>	· 자동차 이용 횡수를 줄이는 노력을 시민들(공동체 등)에게 보상하기
<b>노점 제도화</b>	· 노점 관련 기존 가이드라인이나 조례 있으나 (보행 관련 부서는 아님) 노점 제도화나 생존권 보장과 맞물려 디자인 규칙을 탄력적, 민주적으로 협의  · 자동차 (탈 것) 위주에서 걷는 존재를 위한 도시로 - 대로 ㅈ거리에 더 많은 횡단보도를! - 보행자 (이용자) 설문, 실태, 요구조사  · 위치 추적 기술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인도로 오지 못하는 보행권 확보. 기업이 개선하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는 캠페인 및 요구
<b>노상 주차장 축소</b>	· 보행에 제한이 되는 요소를 줄인다
<b>보차도 겸용도로 확충</b>	· 안전한 환경의 한 방법으로 차, 사람이 혼재되어 걸을 수 있도록 함
<b>이면도로 차량진입, 통행 제한</b>	· 인도 개설 필수, 일방 통행 도입 등
<b>차량 운전자 인식 개선</b>	· 길 위의 주인은 '차량'이 아닌 '사람'이라는 인식 확대
<b>지역별 보행환경 확인</b>	· 각 동네별로 보행환경을 한번 확인해보는 모니터링
<b>함께하는 보행문화</b>	· 함께 길을 막고 하는 행사를 기획, 동시에 해보며 보행인식, 보행문화에 대한 이슈를 만들기

### 3-5. 디지털약자 의제공론장 개요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의제공론장 (5) 디지털약자
일시	2023년 10월 12일(목), 19:00~21:00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 강의실>
주제	모두의 문제
참석인원	총 33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 3-4. 디지털약자 의제공론장 자세히 보기

디지털약자	
Q. 디지털 관련 불편함을 겪었던 순간	
키워드	내용
핸드폰 배터리 아웃	· 길을 찾아가는 중에 핸드폰 배터리가 나감
버스 운행시간	· 운행시간 확인 없이 이동한다고 디지털 바보소리 들음
맥도날드 키오스크	· 치즈버거만 주문하는데 3~4단계의 절차로 주문 마지막에 되돌아감
키오스크 주문	· 연배가 있는 일행분이 햄버거를 한개 주문 하셨는데 11개가 나와서 나눠서 싸가셨다
회원가입과 비번 외우기 힘들다	· 자주 사용하지 않아 비번을 몰라 귀찮은 적이 있다
인스타그램 비밀번호	· 폰을 변경하고 인스타 계정을 이틀 후 열었는데 비번 상실 됨 · 앱 사용 어려울 경우 시/도 경계에서 택시 잡기 어려움
병원서류 발급 어려움	· 아버지가 병원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
외국인 기차표 발급 어려움	· 스마트폰 없어 온라인 예약 불가
음식주문(온라인) 어려움	· 앱 설치 어려운 외국인들 격리중 음식주문 곤란
너무 많은 암호, 불안	· 수많은 웹사이트와 각각의 패스워드를 관리하기가 어렵고 힘들다
정보를 가장한 광고	·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 자연스럽게 타게팅 되어 드러난 광고 사이트로 연결 하고도 몰랐다
결제유도/광고 어플	· 유사 앱, 결제 유도 앱 사용하여 큰 금액을 불필요하게 결제 했다
정부24 접속	· 비대면 인구 총조사 할 때 정말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접속이 너무 안됨
키오스크 작동불량	· 키오스크가 꺾꺾 눌러야만 겨우 눌리곤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잘 안눌러서 뒷사람 눈치 너무 보임
MAC 지원 불가	·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홈Tax가 MAC을 거부함. 윈도우 찾아 삼만리 · 광고, 푸시알림을 만나오게 하는걸 어렵게 만든 앱, 사이트에 접속
프로그래밍 Hard	· 개발자들은 쉽다는 파이썬...나는 너무 어렵다!!개발!!

<b>잊혀질 권리</b>	· 과거에 쓴 나의 글을 페이스북이 추억이랍시고 띄워준다. 그건 추억이 아니라 이블릭 각이조
<b>디지털 기기 구매</b>	· 특정 디지털 기기를 구매할 때, 어떤 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사야할 지 어려움을 겪었음
<b>다른기기에서 로그인 안됨</b>	· 페이를 쓰는데 모바일로만 되고 태블릿에서는 계속 본인인증 실패
<b>해지 어렵게 만든 앱</b>	· 가입은 했는데 탈퇴하는 버튼이 숨겨져 있어서 30분 넘게 걸렸음
<b>정보의 무분별적 공격</b>	· 지식을 찾고 올바른 정보를 보려는 리터러시 능력 함양 노력
<b>키오스크 사용의 어려움</b>	· 주문하기 위해서는 뒷사람에게 양보하는, 그래서 주문을 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b>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b>	·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시에 신분증 촬영단계에서 정보인식이 제대로 안돼 수십차례 재시도 했던 경험
<b>키오스크 사용, 주문</b>	· 키오스크 주문시 원하는 메뉴가 첫 화면에 없어 당황함. 옆으로 이동시키는 버튼, 표시 등 한참만에 찾음 ·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뒷사람에게 눈치보임 · 항공권 예매
<b>문화상품권</b>	· 문화상품권 온라인 결제시 어려움 · 중간광고임을 모르고 어플 설치로 넘어가 필요없는 앱까지 설치됨
<b>항공권 취소, 예매</b>	· 항공권 취소 후 예매 때 불안함
<b>바코드 있는 커피쿠폰 키오스크 사용</b>	· 선물받은 바코드 있는 커피쿠폰 사용시 어리둥절
<b>국세청 공인인증서 발급</b>	· 국세청.. 단체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어려움 · 전화로 이거 왜? 안되니? 라고 물어보심 · 키오스크 주문시 뒷사람이 많으면 순간 헤매게됨
<b>SRT 현장예매</b>	· 현장에서 SRT 열차 예매시 바뀌는 속도가(시간) 너무 빨라 열차 놓칠까봐 두려움
<b>인터넷 상점</b>	· 결제 과정 어려움, 발달장애인 이용 안됨(내용이해, 순서이해 어려움)
<b>무인주차장 결제</b>	· 청각 장애인이 무인주차장 결제 고장나서 문의하려는데 음성만 나와서 4시간 차 못빼고 기다림
<b>키오스크 어려움</b>	· 키오스크에서 메뉴 고르고 결제하는 것이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림
<b>음악 어플 사용 어려움</b>	· 결제해야함. 결제수단 등록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음악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음

<b>낮선 키오스크 대면</b>	· 자주 가는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갔는데 새로운 방식의 키오스크를 보게 되어 당황함
<b>인터넷 구매(주로 중장년)</b>	· 카드등록, 온라인 결제등의 복잡함
<b>사이렌 오더 사용</b>	· 사이렌 오더와 같은 모바일 주문의 존재를 몰라서 직접 가서 주문하고(+키오스크 사용) 주문을 받는데 오래걸림. 가게에 먼저 도착했는데도 늦게 음식을 받게 되는 경우 생김
<b>교통카드 잔액 파악 X</b>	·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음성 안내가 안나와서 힘들어 느껴진다
<b>키오스크 주문 어려움</b>	· 시각장애인으로서 음성이 안나와 주문이 어렵다
<b>코레일톡 사용 불편</b>	· 시각장애인으로서 인원수, 자리선택 어려움
<b>코레일 기차예매</b>	· 현장예매는 다 매진
<b>컴퓨터 프로그램 사용</b>	· PDF, 엑셀 프로그램 등 설치가 어려움
<b>온라인 강의 어려움</b>	· 화면해설이 안나와서 강의 내용 일부 파악 어렵습니다
<b>코딩 몰라요</b>	· 요즘 학생들은 코딩 필수로 배운다는데.. 안배운 사람들은 어려워요
<b>SNS를 이용한 사업홍보</b>	· SNS의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식 활용해서 사업을 홍보할 때 SNS 기능 잘 활용하는 것
<b>네비게이션 사용 어려움</b>	· 익숙한 경로가 추천 경로에 안뜸
<b>모든 업체마다 어플 이용 불편</b>	· 요즘 가게, 상점, 서비스 등 어플로 하는것이 대부분. 일일이 설치하는것 어려움 · 정기 결제 취소를 못해 나도 모르는 사이 돈이 나감 · 고장났을 때 대응 방식이 대부분 음성지원이라 청각장애인 어려움 · 유튜브 라이브 시스템 구축 및 전송 중 오류 해결 어려움 · 인터넷 TV 연결 방법을 몰랐을 때 - 크롬캐스트 연결 · 임영웅 콘서트 티켓 구매가 어려워 자녀에게 부탁하는 친구 어머니
<b>식당 키오스크 주문</b>	·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요즘은 키오스크 주문판이 낯설음
<b>핸드폰 고장</b>	· 어머니, 어르신들 사용 안되니 고장났다고 오해함
<b>온라인 쇼핑</b>	· 식품의 실물을 보지 않고 물건을 사지 않음
<b>은행 앱 사용</b>	· 불편하고 어려워서 포기
<b>핸드폰 유심교체 등</b>	· 효율적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도 알고 해보고 싶다
<b>QR 코드</b>	· 몰라서 수강신청 못함



	· 은행 공인인증서
	· 커피숍 키오스크
	· 관공서(국세청) 홈페이지
	· 스마트폰 사용법(카카오네비) 작동X 당황
<b>폰뱅킹(ARS) → 모바일 뱅킹</b>	· 어머니가 기존에 폰뱅킹을 사용하셨는데, 스마트폰 전환 이후 어려워하심
<b>각종 쇼핑몰 활용</b>	· 오프라인구매, 홈쇼핑을 주로 이용하던 어머니가 온라인 쇼핑몰의 존재와 가격을 인지
<b>새로운 프로그램 사용</b>	· 기존 tool보다 범용성, 활용성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귀찮고 좀 어렵네..
<b>아마존 해외 구매</b>	· 직구가 안되고, 현지 중간 배송 업체 경유해서만 구매 가능한 경우
<b>갤럭시 쓸때</b>	· 새로운 은행 앱 UI 복잡, 해킹 위험 → 불안 · 병원 방문시 하루전 미리 병원 앱으로만 예약 요청(똑딱?) · 어머니께서 카톡 복사 붙여넣기 못하심 · 카카오택시 호출 못하심

**Q.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했나요?**

키워드	내용
<b>편의점에서 배터리 충전</b>	· 계속 핸드폰을 써야 해서 충전
<b>구글 소액결제 해킹</b>	· 잠자는 사이 소액으로(50만원)결제된 문자 확인 후 분제 해결하는데 1개월 소요
<b>구글계정 비번 모름</b>	· 구글계정(자신)이있는지조차 모름 · 예전방식으로 주문하는 예전식당을 주로 가신다 · 회원가입 로그인이 나오면 정보 알기를 포기한다
<b>출발역 현장 발급</b>	· 서울역가서 표 구매 · 근처 사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가까운 대중교통역으로 이동
<b>지인찬스 사용</b>	· 아들이 대신 키오스크에서 서류 발급함 · 광고메뉴 파파고로 번역해서 지인이 대신 주문
<b>암호별 규칙과 메모</b>	· 결국 보안위험이 없는 뇌와 다이어리에 기록, 보관하게 되었다

<b>광고 리터러시 개선</b>	· 어떤 배너가 광고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광고 차단 플러그인을 설치했다
<b>관련 앱에 대해 알기</b>	· 공식 앱, 대체 앱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b>정부24 접속</b>	·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기다려서 해냈다!
<b>키오스크 작동불량</b>	· 업체에 신고함 · 의심되는 메뉴를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봐서 끝까지 찾아내 제거
<b>열심히 깨부(깨지고 부서지는)</b>	· 유튜브와 ChatGPT-4의 도움, 구글링의 도움을 받아 개발을 잘 못해도 실무에 활용
<b>마음의 변화</b>	· 부끄러운 과거도 내 모습이구나 이불릭 각 글을 쓴 저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b>지인에게 도움</b>	· 제게 도움을 청하거나 제가 잘 아는 유튜브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 그냥 내버려두고 모마일로만 결제함 · 네이버에 '탈퇴 방법' 검색해서 따라함
<b>키오스크/디지털 서포터즈</b>	· 절차와 순서별 번호가 먼저 나타나거나, 모니터와 기기가 해당 단계에서 Color를 일치
<b>키오스크 사용 방법 공유</b>	· 다양한 방법과 공유로 키오스크 사용법 공유
<b>수동적 수용</b>	·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대다수 · 새로운 메뉴를 시키지 못하고 매번 똑같은 메뉴만 시킴 · 신분증 촬영시 집안 조명을 모두 켜고 반사되지 않게 각도를 잘 잡는다 · 광고가 구분되도록 표시하면 좋을듯 · 3시간동안 검색과 각고의 노력 끝에 완료
<b>국세청 원격지원요청</b>	· 전화 상담 후 원격지원 요청 후 해결함
<b>직원도움으로 키오스크 사용</b>	· 바쁜 일 끝낸 직원이 천천히 알려줘서 해결
<b>아들찬스</b>	· 항공권 취소 아들찬스
<b>동반한 지인이 현장 예매 대리</b>	· SRT 현장에 함께 갔던 지인이 예매 해서 집에 올 수 있었음 · 앞사람이 주문한거 그대로 따라했어요 π^π · 캡처해서 보내봐!
<b>인터넷 상점</b>	· 발달장애 분들이 혼자서 사용 어려움. 지원자 도움 받아서 이용
<b>무인주차장 포기</b>	· 다음 사람이 와서 도와줄때까지 기다림
<b>키오스크 어려움</b>	· 뒤에 기다리던 다른분이 도와줌

<b>컴퓨터 프로그램 설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료(젊은 활동가) 분이 도와줌</li> <li>· 사람들이 많이 없을 시간을 노려 키오스크를 사용함</li> <li>·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함. 하지만 원할 때 중지시키거나 재시작하는 것이 번거롭고 계속 부탁하는 것이 미안해 음악 어플 결제 해지</li> <li>· 이런 주문 방식이 있음을 알아도 사용하려 하지 않음. 1, 귀찮고 2, 비회원은 주문 안되기 때문</li> <li>· 기사님이나 주위 사람들 여쭙어 보았다</li> <li>· 친한 친구에게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았다</li> <li>· 주위사람의 도움 요청</li> <li>· 역전 매표서에 직접 가서 표 구매함</li> <li>· (젊은) 자녀가 대신 주문</li> </ul>
<b>현장에서 입석으로 구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석은 온라인 예매로 다 매진이라서</li> <li>· 코딩강좌 듣기</li> </ul>
<b>잘다루는 사람에게 문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법등을 물어봄, 인터넷 검색</li> <li>· 그냥 추천경로대로 총총</li> </ul>
<b>어플 혜택을 포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라리 안받고 말지</li> <li>· 정기해지 포기 → 금전피해</li> <li>· 전문가 도움 &amp; 동료 도움</li> <li>· 자녀가 구매하여 연결, 사용방법 설명</li> <li>· 자녀에게 티켓구매 도움 요청</li> </ul>
<b>키오스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워서 찬찬히 읽어 사용</li> </ul>
<b>핸드폰 고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들이 올때 도움, 반복민원</li> </ul>
<b>온라인 쇼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더 많이 바뀔 것이라는 예측. 염려</li> </ul>
<b>은행 앱 깔기 포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에게 송금 부탁</li> </ul>
<b>핸드폰 유심교체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 사용방법을 언젠가 배워야지</li> <li>· 수강신청 포기</li> </ul>

<b>은행 공인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자녀 도움</li> <li>· 포기</li> <li>· 선배도움</li> <li>· 안마시고 그냥 나옴</li> </ul>
<b>관공서 홈페이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기간 지나서 은행 통화 안내 받으면서 시간 多</li> </ul>
<b>카카오네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무에게나 물어봄(길가는 사람)</li> <li>· 훨씬 빠르고 편한 모바일 뱅킹이 있음에도 폰 뱅킹을 사용하심</li> </ul>
<b>자녀들의 도움, 이내 적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엔 자녀들이 도와드리고 어려워 하셨는데 이제는 느리지만 잘 활용하심</li> <li>· 여전히 쓰던 프로그램 사용</li> </ul>
<b>아마존 해외 구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소 아마존 능숙하게 사용하시는 아버지께 부탁드림</li> </ul>
<b>갤럭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폰/아이패드로 바꿈(카뱅 앱)</li> </ul>
<b>병원 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병원 알아봄(전화로도 예약 가능한지)</li> </ul>
<b>카카오톡 복사 붙여넣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머니께 알려드리기 전까지 일일이 다시 쓰고 계셨음.</li> </ul>
<b>카카오톡시 호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에게 전화 하셔서 카카오톡시 불러달라고 하심</li> </ul>

**Q. 사회적 지원 방안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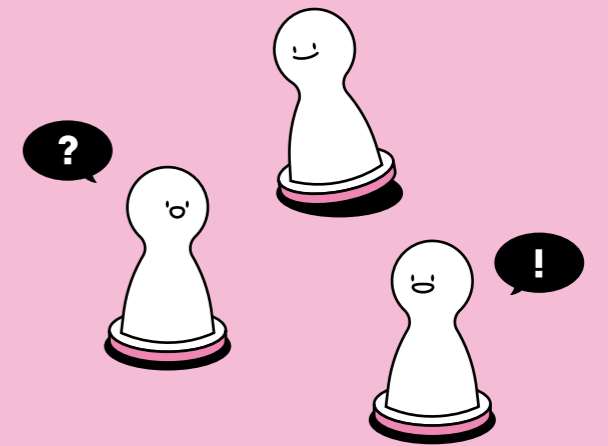
키워드	내용
<b>디지털, 아날로그 병행 사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원가입 어려운 경우 전화, 문자등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은행, 따릉이)</li> </ul>
<b>무인주차 결제시스템_청각장애인</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결제 버튼 클릭 → 문자(음성변환)</li> <li>2. 사전결제선택(앱)</li> <li>3. 취약계층전국무인주차지원</li> </ol>
<b>용어가 어려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들딸을 동원하고 유튜브를 이용해서 느리지만 배워보려고 한다</li> </ul>
<b>정보의 무분별한 공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 나누는 모임 지원</li> </ul>
<b>사용방법이 어려운 키오스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에 키오스크를 하나 들여놓고 익숙해진다(하고싶다)</li> </ul>
<b>키오스크 이용 어려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li> <li>· 뭘더사라고하지마라</li> </ul>
<b>온라인 광고 차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게 광고 차단할 수 있어야(플러그인)</li> </ul>
<b>편의점 배터리 충전(방전될 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간 무선 충전</li> <li>· 케이블없이모든공간충전(벽,기둥,바닥,책상면)</li> </ul>

<b>키오스크 표준화</b>	· 키오스크가 가는 곳마다 다 달라서 더 헛갈린다. 실수했을 때 수정하기도 어려워서 한번쯤은 직원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것도 좋지 않을까? 키오스크 화면설계/이용 프로세스 표준화가 필요하다
<b>비-온라인/디지털 창구 유지 지원</b>	· '전산화'나 '최첨단' 이 능사는 아니다. 스마트폰은 만능기기가 아니며 포용적인 소통과 서비스의 방향을 고안, 추구해야 한다!
<b>디지털 문제는 또 다른 디지털 기술로</b>	· 모든 기술발전이 사람에게 이롭지 않지만. 이로운 기술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외우기 어렵다면 생체인식 등 대체인식 수단의 확대를, 기기사용법이 어렵다면 이를 알려줄 사회적 시를 개발하는 등 새롭게 개발하자
<b>PDF, 엑셀설치 대신 공공프로그램 개발</b>	· 중앙은행이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발행하듯 범용성 높고 UI 간편한 문서작성프로그램 개발해 무료 or 저렴하게 배포
<b>사회적 안전망, 신뢰와 여유를 갖추기</b>	· 결국 안전망이 미비해서 오는 불안감과 급급함이 크다. 문제의 본질은 이런게 아닐까?
<b>복지제공의 관점으로 해결</b>	· 결국, 디지털약자 문제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 였다. 청각장애인분들 사례, 어린아이, 노년층 등 기존 취약계층과 많이 겹쳐있다. 오히려 단순하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 사회적 관심, 사회적 배려를 높이고 기업에게 디지털약자를 배려할 유인(지원, 규제)을 하면 좋지 않을까?
<b>디지털약자 배려분 마련</b>	· 임영웅 콘서트 등 디지털약자 수요 높은 공연은 일정부분 좌석 따로 빼서 디지털약자에게 우선공급(like 나눔티켓 - 경제적 취약계층 위해 여분좌석 제공)
<b>전국민 디지털약자 교육 및 인식 고취</b>	· 다들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야 한다는 교육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소외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b>개인 데이터 저장소(PDS)</b>	· 개인 사용자 스스로 온전히 통제, 관리 가능한 데이터 저장용 단말기의 필요성(스마트폰에 절대존을 분산)
<b>광고, Push 앱 규제</b>	· 게임하다가 누른 버튼 하나로 광고앱이 가득 깔려서 사용 자체가 어려웠던 적이 있다. 광고가 너무 많이, 특히 유해한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 같다.
<b>자기주권신원(SSI)</b>	· 개인 사용자 스스로 인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의 필요성
<b>지역 디지털 친구 맺기</b>	· 동네(지역)에서 키오스크 동반 친구 맺기 캠페인(디코-디지털코칭-친구), 일거리 제공, 봉사
<b>해지/환불신청 항목 제도화</b>	· 제품 구매/구매목록 페이지의 좌측 하단에 해지 및 환불 신청 항목 제도화 → 구매도 쉽게, 환불도 쉽게 받기
<b>지역 1:1 디코</b>	· 기차(SRT)등 항공권 예매 방법 등 1:1 디지털 코칭 필수
<b>결제, 해지버튼 활성화 및 1:1 디코</b>	· 구글 소액결제, 미드저니, 줌 등 정기결제 해지 등 결제 취소 등에 대한 1:1 디지털코칭 교육 필수  · 더 많이, 더 가까이, 접근 가능한 교육과 안내, 더 촘촘히, 더 자세히, 아직은 사람과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시점임으로 찾아가는 정책과 실생활 적용 교육

<b>디지털 서포터즈</b>	· 키오스크 등 여러사람이 줄을 서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 비치 장소에는 디지털약자 배려 차원  · 개인정보요구 제한  · 인터넷도 보관기간이 있었으면..(계속 남는것은 조금...)  · 방법을 정리해서 안내 필요(블로그 등에 방법 등 설명!)  · 각 사이트당 허용가능한 패스워드(!^? 등) 표기를 했으면 좋겠음(번번히 본인인증 π^π)
<b>패스워드 기억 어렵다</b>	· 패스워드(비밀번호),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한가지로 통일해 사용하면 어렵게 싶다
<b>베리어프리 기기설치(키오스크)</b>	· 음성안내, 촉각(점자 등), 화면확대, 그림으로 상품설명, 순서안내도 제공, 기기의 높낮이 조절
<b>키오스크의 변화</b>	· 음성, 그림, 높이, 접근성. Universal Design  ·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포용하기 위해서 어플에 선택지가 다양함. 그래서 사람들이 헛갈려하고 어렵다 느낌. 많은 선택지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선택도 필요함. 예를들면 '커스텀하기', '기본으로 선택' 한다라는 선택지 보여주기
<b>선택지 축소</b>	
<b>어플, 키오스크 표준화</b>	·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표준가이드라인 국가적 마련
<b>쉬운말, 그림, 적당한 기호</b>	· 단어는 간단하게 그림과 기호를 적절히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어플, 키오스크 등)
<b>명료한 단어 사용</b>	· 현재 어플 사용법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애매모호한 단어 사용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단어 사용하기
<b>기계의 사용을 피할수는 없다</b>	· 가입, 해지, 탈퇴 등에 대한 방법을 사이트 맨 앞에 볼 수 있도록 게시, 메뉴얼 표준화  · 사업장들이 다 어플을 사용하는 이유 → 사업장 홍보의 목적, 검색건수를 높여 인지도 ↑. 웹사이트 자체에 대한 혜택 및 오히려 무어플 정책
<b>간단한 절차</b>	· 무인정보단말기, 어플 등 절차를 최소화해서 단계를 간단하게 사용하도록 변경
<b>OS 내 앱 UI 통일(스토어 업로드 승인 기준)</b>	· 모바일 OS 보안규제 강화 → 클라우드 기반, 카카오키오스크 OS(가칭) 개발(스마트폰 사용 어려운 분들도 카톡은 편하게 이용하시기 때문), 안드로이드 대체(갤럭시 OS 변경)
<b>디지털 언어 교환(중년, 노년) 데이트 앱 개발, 활성화</b>	· 모국어가 다른 그룹이 만나 서로 천천히 배려해주면서, 각자의 모국어를 가르쳐주듯이, 디지털 언어가 다른 그룹이 만나 서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상대방이 따라오기까지 기다려주기
<b>노인용 핸드폰</b>	· 통화목적 외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제품 개발(버튼식)

<b>디지털 전환에 친절한 정보제공 코너 개설</b>	· 은행(예약 사이트) 등에 전담 코너 개설. 예) 카드 분실 신고시 10분 넘는 통화도 기다려주기도 함
<b>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관리 지원, 감독 강화</b>	· 이력저러한 사이트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제공할 때 동의해도 되는지 염려가 됨. 정보제공범위 엄격, 제공된 정보관리 지원, 감독(영세한 기업)
<b>디지털기기 전환에 따른 인력 감축 제한</b>	· 무조건적 디지털 기기 전환이 아니라 필수(기본) 인력을 두도록 함
<b>공공서비스영역 UI 규격 통일</b>	· 공공서비스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큰 틀에서 환경을 통일시킨다
<b>중간광고 제거를 용이하게</b>	· 중간광고를 닫을 수 있는(제거할 수 있는) 표식을 광고의 1/n 크기로 노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b>외국인을위한 번역기, 안내요원 배치</b>	· 외국인 지하철 환승이 안되어 당황 → 교통카드 잔액부족이 원인. 안내하는 사람이 번역기를 통해서라도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것 필요
<b>키오스크 헬퍼 필요, 대면주문 데스크</b>	· 키오스크 사용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전담인력배치나 대안책 필요함 → 음식 주문시 사람의 도움
	· 동사무소 스마트폰 디지털 상담 해결사(복지차원)
	· 정부24 프로그램 바꾸기
	· 디지털 서비스 상담전화 마련(스마트폰 제작회사 법적의무)

# 4. 시민공론장



# 시민공론장 개요

-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시민공론장
- 주제** 내가 느끼는 OO문제, 공익활동으로 풀어볼 수 있을까?
- 일시** 2023년 11월 11일(토), 14:00~17:00
- 장소**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
- 목적**
  - 5개 의제공론장의 결과 공유 및 의제별 논의의 확장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문제 관심도 및 경향성 파악
  - 모아진 사회문제 중 공동의 우선순위 선정
  - 핵심의제 수립 및 시와 협력하여 시민참여 중심의 실행계획 마련
- 참석인원** 총 55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 시민공론장 자세히 보기

## ■ 시민공론장별 그룹별 논의 결과

나에게 1억이 주어진다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나요?			
[ 1 조 ]			
분류	문제 현상	문제 원인	해결방안
저탄소 도시 서울 만들기	<b>저탄소 1.5도 라이프 스타일 도모</b> · 현대 고탄소 시스템(육식, 자가용, 비순환 경제)	· 고탄소 사회 소비, 편의, 일회용품, 석유, 석탄 · 소비해야 굴러가는 사회 · 편의 추구	· 일회용품 사용 X · 적게 소비하기 · 편리함을 좇지 않고 건강한 불편함을 추구하기(텀블러 등)
	<b>자전거 도로 활성화</b> · 공유자전거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인도에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곤 함. 자전거 도로가 없이 도로에 자전거 우선도로 하는데 죽을 것 같음. 자전거 도로 있어도 주차차 다		<b>시민 산책단이 감시해요</b> · 자전거 도로에 무심코 방치된 적재물, 주차차 등을 심각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 마련
	<b>음식물 쓰레기 낭비</b> · 재료를 나만 낭비해? 재료 낭비가 일상인 그리고 그게 불편한 이웃이 서로 알고 지내지 않아서		· 샌드위치 플라스틱, 종이컵 줄이기 · 캠페인(공공기관부터)
사회 안전망	<b>식재료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b> · 아이들이 편안하게, 접근 쉽게 함께 지낼 공간이 필요해요 · 지역 내 보호자 취미 활동 공간 만들기 + 아동 안전 돌봄 인력 배치(지역 이웃)		
	<b>부모님 생활수준만큼 살 수 없는 듯한 청년세대</b> · 영끌, 빚투, 계층 사다리가 없어지고 노동 소득보다 자산소득의 gap이 너무 커진 사회, 이전 세대만큼 집, 차, 커리어를 갖기 어렵고, 점점 더 불안해지고 변화무쌍해지는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모색		· 서울 중심 사회 ↓ 노력 · 공공주택 분양 ↑ · 양질의 일자리
	<b>생활동반자법 조례 제정</b> · 1인 가구, 독거노인, 이성 부부, 동성 부부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방향	· 핵가족화, 1인 가구화 · 생활 동반자법의 의미 취지 구체적 내용이 시민에게 공감의 형태로 잘 전달되지 않아서	· 생활동반자법 등으로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 결성 등 다양성 ↑, 사회안전망 ↑ · 생활동반자 법의 여러 기능 중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와 방법을 추리고 공론하는 방안이 필요해요

<p><b>디지털약자가 없는 서울</b></p>	<p><b>모두가 쉽게 예매해야 해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차표, 관람권 등 온라인 100% 사전예약제로 인해 이동권, 문화접근성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 소외 문제를 기능의 문제보다 의식과 문화적 개선의 모범사례를 선보이고 싶다</li> </ul>	<p><b>디지털 만능이란 생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은 누구에게나 좋은거야! 라는 생각으로 디지털로 인해 누가, 어떻게 불편한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li> <li>· 빠르게 효율적인 것만큼 '함께 사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 개선</li> <li>· 약자 배려 티켓 확보</li> <li>· 어르신 비율만큼 서울시가</li> <li>· 미리 티켓 확보</li> <li>· 모두가 다 스마트폰, pc, 노트북이 있다는 편견</li> <li>· 오프라인 창구를 없애지 말고, 오프라인 창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자</li> </ul>
<p><b>공공도서관 활성화</b></p>	<p><b>더 좋은 책이 많이 필요한 도서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 도서 신청 상한 액수(권수)를 좀 더 늘려주세요. 더 많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양질의 도서를 많이 신청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독려해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이 편의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도서관이 양질의 도서를 제공한다는 본질에 집중하지 않은 것.</li> <li><b>지역의 도서관 매니아 발굴</b></li> <li>· 그들이 홍보 주체로 나설 수 있게</li> </ul>
<p><b>역사 도시 서울</b></p>	<p><b>지금까지 5000년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형 문자를 알려 최초의 문자를 만든 나라라는 자긍심 부족</li> <li>· 광고판에 고대 문자 활용</li> <li>· 최초의 문자 또는 근본 뿌리를 밝히는 것부터, 모두가 연구할 수 있는 장소 마련</li> <li>· 세계 문자 학회를 만들어 관광객 모을 수 있는 장소 마련</li> <li>· 상형 문자 및 고대 문자를 공유하고 연구할 수 있는 장소 마련</li> <li>· 세계 인류들의 역사를 새로 써야되는 공론장 필요</li> </ul>	

<p><b>만 13세 스포츠 아동 폭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복되는 스포츠(축구, 야구) 지도자 폭행에 대한 6년간의 자료, 진실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정당, 언론의 무관심(국민 삶X 권력 추구)</li> </ul>	
<p><b>스포츠 관련 협회의 부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폭행 관련 자료, 피해자 도움안되고 재판과 자격 정지 후 다시 복귀되는 현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계와 국가기관의 부패, 무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폭행 감독 복귀, 지도자 생활 계속하는 행태에 대한 경각심</li> </ul>
<p><b>반복되는 스포츠 아동 폭력</b></p>	<p><b>선출직 공무원 징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폭행 은폐 후 재선 당선 의원에 대한 재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출직 공무원(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의 의무 조사 상실</li> <li>· 인권, 아동 폭행, 스포츠 폭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li> <li>· 정치인과 체육 관계자의 국민여론 심판</li> <li>· 대한 축구 협회, 스포츠윤리센터 여야 정당 카르텔 조사</li> </ul>
<p><b>정치에 이용되는 스포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스포츠 활동이 정치권에 이용되는 현실에서 공명정대, 독립 스포츠 양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산업의 이해 부족(경제성)</li> </ul>	
<p><b>재판, 자격 정지 내 활동 아동폭행 감독 활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 기득권 카르텔 조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는 불투명</li> <li>· 사단법인으로 법적책임 회피</li> </ul>	

[ 2조 ]

분류	문제 현상	문제 원인	해결방안
<p><b>환경(플라스틱, 분리수거)</b></p>	<p><b>플라스틱 재활용 방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가구는 필수적으로 1.5L 플라스틱 물통을 삼. 1.5L 생수 6개를 거의 전부 사용.</li> <li>·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연구 필요. 어떤 방식의 재활용이 좋을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라스틱 물통을 종이 물통으로 변환</li> <li>· 플라스틱 재활용 사례 수집으로 환경 포인트 제공</li> </ul>
	<p><b>분리수거 문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입세대 웰컴키트, 쓰레기 10장, 동 생활 가이드</li> <li>· 제로 웨이트 가게 확대, 리사이클링 가게 동네별로 만들</li> <li>· 분리수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거점 수거함 설치, 보급, 분리수거 안내문 배포</li> </ul>

발달 장애인 지원	<b>성인 발달 장애인 주거 독립 지원 부족</b> · 성인 발달 장애인들, 청년들은 사기에 노출이 많고, 여성 장애인들은 성폭력에 노출이 되어 장애 자녀 주거 독립을 어려워함 · 독박 돌봄에 따른 가족 간 갈등과 위기 노출	· 발달 장애인 청년들에게 독립 주거 체험을 위한 원룸 10개를 임차 · 당사자 조직 + 사회적기업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b>발달 장애 청년 대상 스피치 교실 부족</b> · 장애 특성상 장애 당사자 의사 표현의 어려움	<b>장애 청년 대상 스피치 교실 운영</b> · 직업에 참여 중인 발달장애 청년들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스피치 교실 진행
	<b>장애인 및 돌봄 가족 대상 주말 활동 프로그램 부족</b> ·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주말 참여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돌봄 가족과 집에 고립되는 현상 발생 · 주말이면 참여 프로그램이 없어 집안에 고립되는 장애 가족 지원 필요	<b>주말 고립 장애인과 돌봄 가족을 위한 스포츠, 문화, 여가 활동 지원</b> · 돌봄 가족의 우울감 +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스터디, 자조 모임 운영
	<b>장애인 이동권 실질적 어려움</b> · 구축 건물에 턱이 있어 지체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저상버스 기사님이 사용법이 미숙한 장면을 많이 봄 ·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실질적 정책 부재	<b>중증 발달 장애 돌봄 가족 역량 강화 교육</b> · 버스 등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정책
지역사회	<b>로컬 미디어 활성화 필요성</b> · 지역에 대한 관심 및 문제 공유와 해결 · 왜 로컬인가에 대한 의문 해결	<b>로컬 문제에 대한 무관심</b> · 나와 상관없다(이익, 정주) · 왜 로컬인가? : 문제 해결의 최소단위 공동체라는 인식 · 저신뢰 사회 : 타자에 대한 공포(예 : 사기, 종교)
	<b>동 단위 공유 플랫폼 설치</b> · 정주권 요구 일자리와 돌봄 문제, 자원 공유	<b>'마을' 단위에서의 공유와 업사이클링 센터</b> · 주민 자격으로 마을 일자리와 순환 경제, 공유냉장고, 집수리, 옷 수선,
	<b>골목길 보행권 보장</b> · 불법 주차, 갓길주차 등으로 안전하게 걷기 힘든 골목길 등에 보행로 만들어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	<b>보행권 법률, 정책 강화</b> · 끊어진 보행로 정비 · 불법 주차 단속 강화 · 불법 간판 단속
	<b>보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다</b>	

	<b>1인 가구, 노인의 외로움 및 단절</b> · 출 퇴근길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 저녁을 고민하고 퇴근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1인 가구, 이웃과의 단절, 사람을 대하기가 점차 어려워짐	· 외로움을 느끼는 청년, 노인, 지하철역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노인, 청년	· 지역별 외로움을 해소하는 매개체 및 프로그램 개발(예 : 소셜다이닝, 디지털 교육 등)
정치 참여	<b>정치권 비리 부패 공론화</b> · 사회에 만연한 정치권 비리 부패가 없어지면 사회가 건강해지니 1억으로 정치권 부패 없애는 대안을 상금으로 모으고 싶음	· 선거에 이기기 위한 불법 선거 자금 필요	<b>시민 캠페인</b> · 정치권 비리 부패 시 가중처벌법 · 정치권 비리 부패 신고 시 포상금액 올리기(부패금액 절반 이상)
	<b>구 의회록 유튜브 채널 부재</b> · 구정 관련 중계	<b>사람들이 지역 정치를 멀게 느낀다</b>	· 지역 정치 관련 재밌는 콘텐츠 제공
기타(주거 등)	<b>사회초년생의 의지를 꺾는 주거문제</b>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사회초년생 삶의 의지 저하. · 정책적 보증보험의 혜택은 현실과 괴리가 많음. · 서울에서 월세 살면 소득의 30% 가까이 납부해야함 · 부동산 정책이 어렵고, 부동산버블 ↑	<b>청년 주거 문제의 괴리</b> · 청년이 전세로 살기 위한 실질적 주택과 보증보험 가입 요건의 괴리가 심함	· 지역별, 권역별 공인 중개사 · 배치 및 매물에 대한 안전도 · 검사 기준을 갖춘 플랫폼 개발
	<b>1단체 1년 1사회문제 해결 캠페인</b> · 여러 사회단체 등이 사회문제에 대해 꾸준히 연속해서 논의되지 않아 사회문제 해결이 안 됨 · 수많은 종교 단체 등 사회단체들이 1년에 1가지 사회문제 해결 노력		



[ 3 조 ]

분류	문제 현상 / 원인	문제 원인	해결방안
사회적 고립	<b>1인 가구 고립감</b> · 이주자, 자발적 1인 가구, 비자발적 1인 가구들의 고립감이 높아짐. 자연스럽게 고립감을 해결하려는 '연결감'이 필요함	· 단타성에 끝나는 지원, 정책 · 특정 연령대에 치우친 지원 · 저출산으로 외동 어린이 증가 ·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의 문제 해결에 부족한 사회 지원	· 다양한 형태, 연령 1인 가구 기준 확대 · 100m 주변 1인 가구끼리의 연결 행위
	<b>지속적인 마음 돌봄 플랫폼 부족</b> · 단타성의 돌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음 · 예산을 사용하려는 지원보다 지속가능한 플랫폼 기획 필요	· 일자리 도시 집중화	· 인문학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인문학은 다정한 사회를 만들어요)
	<b>어르신 사회적 고립</b> · 노인 고독사 증가 · 지속적 커뮤니티 부족	<b>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 복지 지원 부족</b>	· 어르신 그룹과 어린이 그룹의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지원(그룹간 자매결연 등) · 어르신 공동 주거 및 프로그램 개발
	<b>소통하지 않는 사회</b> · 기술은 발달하고 정보는 넘치지만 고립과 소외감도 커짐 · 혐오, 편견, 폭력이 결과적으로 심화되어 감		·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마련(대화가 많은 사회)
생활 폐기물	<b>일회용품 사용 증가</b> · 음식점 종이컵 사용 오히려 증가(기후 위기 심각성에 역행)	· 귀찮음, 불편함	·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이 기본이 되도록 '권고'가 아닌 '의무'조항으로 제도(법)화 ·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교육 필요

생활 폐기물	<b>생활폐기물(일회용품) 증가</b> · 다회용품 세척 불편(야외 세척장소 X)	· 쓰레기 배출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애인의 도덕성에만 의존중)	· 텀블러 세척 스테이션 설치 예 : 버스정류장 · 개방형 세척 스테이션 카페에 지원금 지원
	<b>동네 생활 쓰레기</b> · 길거리 쓰레기 배출, 배달 쓰레기, 탕후루 꼬치		· 요일제 주차처럼 요일제 텀블러 더미 · 텀블러 사용 시 베네핏을 주는 프로그램
예술인	<b>예술인 생존권</b> · 개인 예술인이 활동할 장이 없음	· 문제의식 부족 · 필요성 인식	· 예술인 지원 요건 완화
장애인 편의	<b>장애인 불편 해소</b> · 시각 장애 보도블럭이 없는 거리	· 장애인과 소통 기회 부족	· 동네 장애인과 함께하는 커뮤니티 활동
공간 접근성	<b>동네 공원, 공터 쉼터 부족</b>	<b>공동체 의식 부족</b> · 시골 공동체처럼, 마을 단위의 논의 필요	· 카페, 식당, 골목에 공용 공간 설치(의자 등)
		<b>거리가 멀다</b> · 30분 이상 걸거나 마을버스 5 정거장 이상 가야함	
도서관 이용자 접근성이 낮다	· 도서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	· 도서관의 존재를 알지 못함 · 진입 장벽이 존재함	· 찾아가는(이동) 도서관 서비스 · 동네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공원 등에 서비스 ·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곳, 노인정, 어린이집, 맞춤 장서 서비스

[ 4 조 ]

분류	문제 현상 / 원인	문제 원인	해결방안
지저분함, 쓰레기 문제	<b>과대 포장</b> · 과대 포장이 지나침.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환경오염으로 이어짐	· 배달 중심, 기업 중심 편익	· 재활용기 사용 및 수거 의무화 · 주부 중심의 과대 포장 반대 캠페인 실시(환경 보호 인식 up)
	<b>현수막 정리</b> · 요즘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걸려 있음. 가급적 현수막 최소화	·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	· 현수막 설치 장소 지정 및 관공서외 현수막 홍보 최소화

지저분함, 쓰레기 문제	<b>스팸 문자 방지</b> · 무분별한 스팸 문자로 휴대폰을 자주 보게 되고 일상생활 불편함. 광고 문자 차단 희망 · 개인정보의 관리 부실		· 개인정보 도용 처벌 강화, 통신사에게 광고 문자 필터링 의무화
	<b>일반 주거 지역 쓰레기 분리 안내</b> · 산업지역과 함께 있는 일반 주거 지역은 쓰레기 분리수거와 배출에 있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b>쓰레기 분리수거 배출 및 지키기</b> · 아파트 경비분들의 요구		
안전하지 않음	<b>빈 건물, 슬럼화</b> · 관리되지 않는 빈 건물들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거나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음. 관리 주체가 없음	<b>책임 소재 불분명</b> · 불편한 사람에게 권한이 없을 수도 있고, 권한 있는 사람을 찾기 힘들고, 누가 관리해야 하는지 책임소재 모름	<b>빈 건물/장소 신고 캠페인</b> · 구청에서 빈 건물 전수조사만 한다고 다 밝혀지긴 어려운데니 근처 주민들이 먼저 신고/접수 할 수 있도록 캠페인 하자
	<b>안전하게 놀이터 가자</b> ·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주차가 많이 되어 어린이 안전이 위험하다		<b>불법 주차 인식 개선 캠페인</b> · 주차 자리에 놀이터를 열어 마을 안 공간 활용
	<b>견고 싶은 동네길 만들기</b> · 마을 안에 불법 주차로 인해 보행권이 지켜지지 않고 마을의 미관, 분위기가 침해 된다	<b>불법 주차 단속 미흡</b> · 민원으로 단속이 지켜지지 않음 주차장 부족 · 동별 등록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 부족	
	정보 접근성	<b>키오스크 교육은 없었다</b>	<b>기업의 게으름</b> · 키오스크 UX, UI에 대한 기업 연구 의지 부족 · 기업 홍보 부족 · 교육 부재
<b>사회 발전에 대한 대처 미흡</b> · 변화에 배제되는 계층 인지 부족 · 정부의 안일한 대처 · 교육 부재		· 키오스크 수 늘리기 (공공기관에서 실습 후 설치)	
<b>약 용기 등 작은 글씨 설명</b> · 우유팩, 약 용기 등 작은 글씨 설명이 불편		<b>기업 중심의 정보</b> · 내용물 안에 별도로 큰 글씨 기재된 중요 부분 첨부	

[ 5조 ]

분류	문제 현상 / 원인	문제 원인	해결방안
청년 문제	<b>청년 외로움</b> · 청년 빈곤과 외로움이 너무 심함. 누군가 있다는 연결과 공동체 없이 외로움이 다른 문제까지 야기시킴	· 커뮤니티 등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부족	
	<b>청년세대의 낮아진 사회화</b> · 높은 취업 문턱 등 청년 사회 참여가 어려워짐	<b>선의로 포장된 앞선 세대의 한정적인 조언</b> · 개인의 재능으로 성공한 사례만 기억하고 조언	<b>조언 NO, 응원과 지지 YES</b> ·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기회 제공
청소년 문제	<b>학교 폭력</b> ·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이제는 학교 폭력이 사회의 축소판으로 약자가 강자에게 굴복하는 문화를 그대로 답습 · 상호 존중감 부족		
	<b>청소년/초등학생 교육 격차</b> · 낮은 공공교육의 질/높은 사교육비로 교육 불평등 심화		·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매칭시스템을 구축
	<b>학습 격차</b> · 학생들 간 학습 격차가 심함. 가정환경에 따라 자연스러운 격차가 생겨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지 못함	<b>교육 격차, 학습 격차, 놀이 격차, 소득 문제</b> · 부모가 벌이를 위해 시간을 많이 쏟게 되어 자녀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 부족	
	<b>경제적 여건에 따른 놀이의 문제</b> · 후한기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에 나오는 동안 취약계층 아이들은 그런 시설 이용 X, 집에서 놀거나 복지 시설만 이용		
노인문제	<b>노인교통사고</b> ·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더불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수 증가		<b>보행성 확대</b> · IOT 기술 적용하여 어르신에 근처에 있으면 신호등 시간이 자동으로 늘어나게 하기(카드 찍지 말고)
장애인 문제	<b>장애 유소년 스포츠 무관심</b> · 장애 유소년 스포츠 자원 부족으로 장애인(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의 침해	· 장애에 대한 편견 · 정보 부족	· 장애인이 새로운 소비층으로 대두되어 공급자(기업)와 소비자층 모두 증가

환경 문제	<b>빗물받이 오염</b> · 담배꽂초나 쓰레기, 오염원 유입으로 강, 바다 오염 · 의식 부족,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 · 거리 쓰레기통 부족	<b>빗물받이 교체</b> · 투수율 높은 재질 빗물 뚜껑(반자동)
	<b>과도한 육류 소비</b> · 과도한 육류 소비로 동물들의 삶 파괴	
관계성 문제	<b>폐기물 및 자원 순환 체계 부족</b> ·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일반 쓰레기인 분리배출이 정작 잘 안되는 분리수거로 환경오염 및 지역 갈등 · 재활용 쓰레기 처리 과정에 대한 이해가 낮아 배출 처리 기준이 모호해짐	<b>관계망 해체, 공동체 해체</b> · 접근성 높은 플랫폼을 이용한다(당근마켓 등) + 새로운 개발 X · 자원봉사 참여 · 커뮤니티 운영 · 바베큐 파티
	<b>자유로운 소통의 기회</b> · 세대 간의 갈등, 집안 간의 갈등 등 소통의 무게에서 불거지는 사소한 문제 <b>인사하는 이웃이 사라졌어요</b> · 다이소, 마트, 키오스크 등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 ·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주고받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 다양한 세대의 쉬운 참여를 돕는 로컬 문화자원 연계로(공간, 사람 콘텐츠) 협력 네트워크 형성 → 문화(지역) 안전망 · 반상회 등의 공공모임 운영으로 주민 간 소통 자리 마련 · 정성적 평가와 과정에 대한 설계를 인정하는 정책 환경 필요
관계성 문제	<b>참여의 불평등</b> · 시간, 돈, 여유 등 꼭 필요한 사람은 우선순위에 밀려서	<b>기관의 편의주의</b> · 성과 측정 방식 문제
	<b>정보의 불균형</b> · 각 기관이 모두 다른 플랫폼으로 홍보하고 아는 사람만 찾아가고 다녀온 사람에게 먼저 정보가 전달되는 구조	<b>낮은 접근성</b> · 지식이 기존에 형성된 네트워크 중심으로 돌아감

관계망 부족	<b>아동의 놀 권리</b> · 아이들이 놀 곳도, 놀 시간도 부족함. 다양한, 안전한 놀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필요함	<b>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b> · 놀 권리가 있다는 그 자체를 시민들이 잘 모른다. 혹은 알아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음. 성적을 더 중시	<b>놀러 왔DAY</b> · 학원 밀집 지역 근처 보드게임, 놀거리 체험 팝업스토어 열기	
	<b>고립 청년</b>	<b>가족간의 대화, 경쟁 교육 및 경쟁 사회 시스템</b>	<b>고립 청년과 중년 함께 하기 프로젝트</b> · 지자체에서 은둔 청년에게 일거리 제공, 신중년과 함께 베이커리 카페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로 진입할 기회 제공	
사회적 차별	<b>노동자 차별 문제</b> ·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 약하고 힘없는 자의 비애. 민주적이지 않다	<b>다문화 사회임에 대한 인식 부족</b> · 우리 동네 외국인 진짜 많은데, 그들도 '시민'으로 받아들여졌으면	<b>한민족이라는 '환상'</b> · 우리 어릴 땐 '한민족'이란 단어 많이 썼잖아요. 이제 아닌데. 아니라는 걸 우리 이전 세대에 충분히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요	·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위자들에게 물과 빵을 지원 · 인터넷 기사를 통해 홍보
	<b>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달 서비스</b> · 움직이기 어렵거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물품 지원. 직접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b>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b> · 수혜적 복지에만 관심이 있고 실제적 권리에 관심이 X	· 배민, 요기요 등 기업 라이더 유니온 연합 콜라보 행사로 사회적 약자 배달 서비스 진행	
물리적 배제	<b>장애인의 자유로운 보행권 보장</b> · 건물 입구, 보도 등 장애인 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b>예산, 인력 부족</b> <b>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b> ·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면이 강하다 · 사회적 약자(해당자)에 대한 배려 부족	<b>비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 공모</b> ·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도로의 디자인 공모 <b>안전 보행 보조시설 설치</b> · 보도나 건물 입구 턱이 있는 곳에 사선 시설물 설치	

[ 6조 ]

분류	문제 현상 / 원인	문제 원인	해결방안
고립 은둔 청·중장년	고립 은둔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함께하기 위한 활동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고독사) 개인 문제라는 인식</li> <li>· 사회 연결망 부족, 인간관계, 대인기피</li> <li>· 직무성과에 대한 비합리적 보상, 배분</li> <li>· 급속화로 늘어난 1인 가구 및 핵가족화</li> <li>· 은퇴 중장년 갈곳 없음</li> <li>· 공동체 기회 X</li> <li>· 담당자, 공무원 부재</li> </ul>	<p><b>어르신 말벗 및 이웃 사돈 맺기 다양한 활동 체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달에 한 번 동네 한 바퀴 또는 나눔 행사</li> </ul>
	고립되어 사회생활 시작하지 못하는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군대 이후로 마지막 사회생활이 없는 청년이 많음</li> <li>· 18세 보육원 청년 지원 없음</li> </ul>	<p><b>해외 취업 정보 공개, 활동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을 개발, 다양한 업체 소개하고 교육과정(적용할 수 있는 직무) 제공 및 인턴십 프로그램 개발</li> </ul>
청소년 일상 교육	청소년 일상 교육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정적인 공교육(학교 밖 교육 부족)</li> <li>· 일상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 부재</li> <li>· 대체 지식의 부재, 자체적 방안 모색 어려움</li> <li>· 보호자의 시간적 / 경제적 여유 부족</li> <li>· 디지털 소외로 인한 정보 비대칭</li> <li>· 경제 학습 활동의 정체</li> </ul>	<p><b>학교 교육 과정 내 일상생활 교육 개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식주, 소비, 경제, 놀거리, 노동법 등 분야로 파트를 나누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음식 조리 매뉴얼을 극빈 가정 아이들에게 배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아가기 위한 주거, 근로 계약 등 학교 교육 과정에 일상생활 교육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중장년 구분 X 모이는 공간 제공, 기존 공간 활용(복지관 등)</li> </ul>
공익활동가	활동가 소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 청년 장년 교류 X</li> <li>· 전세 계약, 법 공부 기회 X</li> <li>· 사회 견학 기회 X</li> <li>· 동네 사회 멘토 X</li> </ul>	<p><b>규칙적 신체 활동 장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플랫폼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봉사라는 프레임 속 열정 소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활동을 위한 비영리 지식재산권 공유 플랫폼 설립 운영</li> <li>· 공익활동가 중심 방송 채널 설립, 운영</li> <li>· 적시 노동 교환 기구 : 농번기 일손 도우미용 자가 이동 수단 구매</li> <li>· 실제 활동가 노동시간 대가로 필요한 물품 지급</li> <li>· 활동가 100명에게 100만원씩 나눠주고 싶어요</li> </ul>

청소년 문제	마약 검출 키트 학교 보급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 화장실
	·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만들어본다
	폭력 교사 신고 방법 정리해서 제공
석식 급식 제공	
· 고등학생 방과 후 면하길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면학에 몰두할 수 있게한다	

[ 7조 ]

분류	문제 현상	문제 원인	해결방안
이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통로 마련</li> <li>· 보행자 통로가 마련되지 않아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 통로 고려하지 않은 도시/행정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 없는 거리 운영, 새로운 도시는 보행자 통로 마련, 공사로 도보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장치의 보행권 침해</li> <li>· 인도에 방치된 공유 이동 장치가 너무 많고, 이동 장치를 인도에서 이용하는 바람에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 장치 운영가능한 차도가 없음</li> <li>· 이동 장치를 주, 정차할 공간이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차도를 활용, 이동 장치 운행가능하도록 함</li> <li>· 공유자전거 주차 공간을 활용하여 이동 장치 주차 공간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거리 벤치 확대</li> <li>· 카페 갈 돈이 없더라도 앉아서 사람들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벤치가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열차(출퇴근) 확충</li> <li>· SRT 탑승 시 출퇴근 입석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도 같이 힘들. 입석만이라도</li> </ul>		
길거리 쓰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함 전단 길거리 포상제 10만 X1000명</li> <li>· 길에 뿌리는 쓰레기 명함과 전단지</li> <li>· 포상 1인당 10만원으로 신고 유도</li> <li>· 유튜브 팔배헌터처럼 과태료 시민이 제보로 깨끗한 길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쓰레기통 설치</li> <li>· 과거에는 쓰레기통이 많았던 것 같은데 최근 많이 사라진 것 같음. 쓰레기통이 없으면 길가에 버릴 확률이 높아짐</li> </ul>		

사회적 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 우울증 환자를 위한 특수청소 지원</li> <li>· 중증 우울증 환자는 자기돌봄이 어려운데, 고독사 현장을 보면 쓰레기집을 볼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으로 인한 자기돌봄의 어려움, 금전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경제 활동 능력 / 기회 ↓</li> <li>· 다양한 격차(디지털 격차, 경제적, 사회적 격차) 발생</li> <li>· 관심 부족 : 중증 우울증 환자, 쓰레기 버리러 나갈 힘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 우울증 환자를 위한 특수청소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해결 AI 개발</li> <li>· GPT 개발 좋음. 능력자들 모여서 사회적 약자 도출, AI 개발 및 배포</li> <li>· 기술이 여러 격차를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 격차(디지털 격차,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전 필요한 청(소)년 중년 소액대출</li> <li>· 길거리 급전 명함, 고리 대출</li> <li>· 친구 3명 보증하여 마이크로크레딧</li> <li>· 온라인 쉬운 동시에 금융 교육 기회 제공</li> <li>· 정부 서민 금융상품 안내 병행</li> <li>· 불법 금융 피해자, 권익 기관 보내주기, 연계</li> </ul>	
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관문 도어락 방법 문제</li> <li>· 각 집의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 시스템이 지문 흔적으로 무력화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문이 남는 도어락 기기 자체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사가 지문 방지 재질로 바꾸도록 규제</li> <li>· 공공기관에서 지문 방지 필름 제공</li> </ul>
수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용품 수리권 보장</li> <li>·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수리할 수 있는, 수리 난이도가 낮은 대량의 상품들이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li> <li>· 수리권 개념에 대한 접근성 떨어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 속 수리 가능한 꿀팁 공유 및 홍보</li> <li>· 제조사가 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제작하도록 계도</li> </ul>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가들에게 활동 공간비 지급</li> <li>· 공익활동을 위한 자원과 지원 부족</li> <li>· 지정 좌석이 있는 사무실이 절실, 사회문제 직접 해결할 사람 지원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달체계(홍보) 부족 : 기존 공간을 활용 못함</li> <li>· 청년 이해 부족(문화) : 개인적인 공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가들을 위한 활동 공간 홍보 및 공간비 지급</li> <li>· 기존 활동가 공간 홍보</li> <li>· 개인적 공간 지원</li> </ul>

■ 그룹별 해결방안 우선순위 선정 결과

그룹	제안된 해결방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해결방안을 선정해주세요
1조	· 자전거 도로 위 방치된 적재물, 주정차 시민 감시단 운영 및 논의의 장 마련
2조	· 장애인 이동권을 위한 휴대용 경사로 개발 및 저상버스 기사 교육 의무화
3조	· 텀블러 세척 스테이션 설치
4조	· 기업 X 라이더 유니온 연합 콜라보 행사 등 사회적 약자 배달서비스 진행
5조	· 접근성 높은 플랫폼(당근마켓 등)을 이용한 관계망 문제 해결
6조	· 고립 은둔 청·중장년을 위한 지원
7조	· 중증 우울증 환자를 위한 특수 청소 지원

■ 그룹별 희망하는 서울의 모습

그룹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서울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1조	· 자전거 도로가 횡단보도 만큼 안전한 서울
2조	· 이동이 자유로워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서울
3조	· 텀블러 스테이션 덕분에 일회용 컵 사용이 사라진 서울
4조	· 각자가 가진 강점으로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서울
5조	·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서울
6조	· 직접 찾아가고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꿈을 그려 나가는 서울
7조	· 중증 우울증 환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서울

내가 가장 원하는 서울의 모습은?

41 votes 41 participants

1조 : 자전거도로가 횡단보도만큼 안전한 서울 - 5 votes



2조 : 이동이 자유로워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서울 - 7 votes



3조 : 텀블러 스테이션 덕분에 일회용 컵 사용이 사라지는 서울 - 5 vo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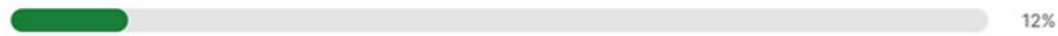
4조 : 각자가 가진 강점으로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서울 - 6 votes



5조 :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서울 - 8 votes



6조 : 직접 찾아가고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꿈을 그려나가는 서울 - 5 votes



7조 : 중증 우울증 환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서울 - 5 votes



■ 전체 공감도 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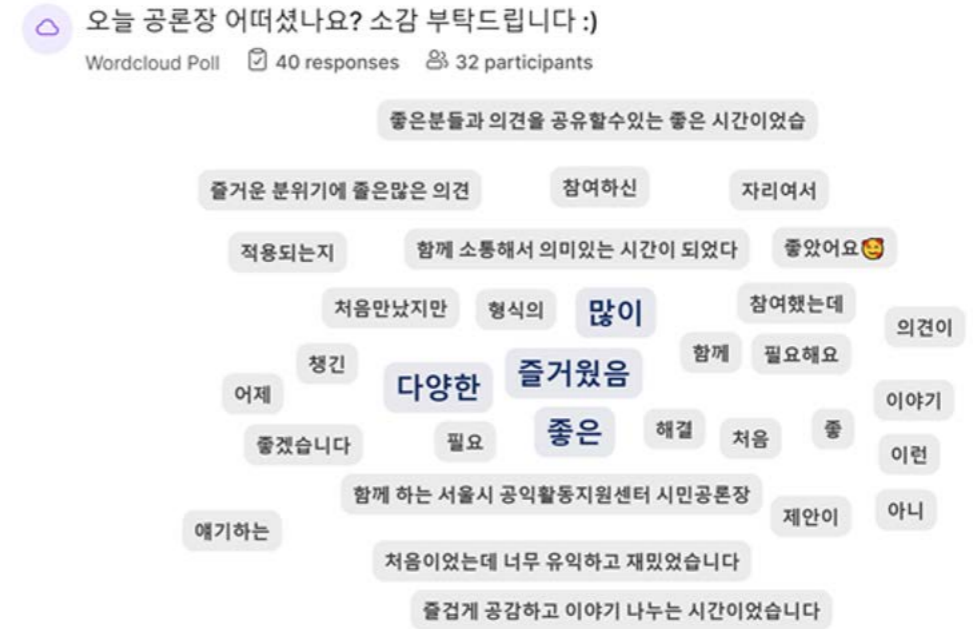
순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서울의 모습	득표율
1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서울	20%
2	이동이 자유로워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서울	17%
3	각자가 가진 강점으로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서울	15%
4	자전거 도로가 횡단보도 만큼 안전한 서울	12%
4	텀블러 스테이션 덕분에 일회용 컵 사용이 사라진 서울	12%
4	직접 찾아가고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 꿈을 그려 나가는 서울	12%
4	중증 우울증 환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서울	12%

■ 개별 관심 의제 및 공익 활동

내가 관심있는(주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는(공익활동)을 하고 싶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정책 제안, 캠페인 참여
안전한 보행길 만들기	길거리 모니터링
1인 가구 문제	커뮤니티 활동
사회적 고립	정책 제안
공동체 와해	생활동반자 조례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공동체 형성 공론화
예술인, 노인, 장애인 등의 생존권	창직 연구 커뮤니티
지역 문화 활성화	지역 예술 커뮤니티 활동
성인 발달 장애인과 돌봄 가족 고립 방지	주말 스포츠, 문화, 여가 활동 지원 커뮤니티 운영
이동이 자유로워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서울	계단 정복 지도 정보 등록(어플)
1인 가구 고립감	내주별 100m 1인 가구를 만나 공통된 고민을 나누는 활동
이동권 문제	상품 개발, 정책 제안
아동의 놀 권리를 알리기	학원 밀집 지역 앞 놀거리 팝업스토어 놀러왔DAY
은둔 청년	시민 커뮤니티 모임
5000년 역사를 밝혀내어 역사가 숨쉬는 나라	연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구
장애인 편견, 배제	전국 아이디어 기술 공모사업
청년 외로움	청년 독서 클럽 독수 공방(독하게 수다떨며 공감하는 방)
과도한 육류 소비로 인한 동물 학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시민교육 프로그램

우리사회의 소통 문제	바베큐파티
청년 사회화	당근 시민 조직
1인 가구 고립	이야기 나누기
전세 사기	지역 세입자 모임 조직
방치된 자전거 도로를 안전하게 만들기	따릉이를 안전하게 타고 싶은 시민들을 만나 함께 자전거를 타며 신고, 관리하는 커뮤니티 운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문제	모임
이동 생존	일상 생존 매뉴얼 만들기
저작권(원작자) 소외 문제	순수 공익 목적 설립, 운영되는 신원인증 플랫폼
자살 문제	야간 상담소 운영
사회적 약자 불편함	친구들과 소통, 공감
보행권 침해	동네 안 가장 위험한 공간의 차 한 대 빼기 캠페인
보행권 침해 문제	이동 장치(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공유형 이동 장치) 사용자 대상 교육
장년 고독사	어른 유치원
일상생활 교육	찾아가는 학교 일상생활 교육 활동가
정보 격차 문제	다양한 루트의 홍보 활동
가짜 뉴스	팩트 체크 AI & 디지털 리터러시 증진 활동
서울 주거세입자 정보 불평등	온라인 정보와 캠페인 액션

## ■ 시민공론장 참여소감



# 5. 공익활동바.자.회. 온라인 플랫폼



# <공익활동 바.자.회.> 온라인 플랫폼 추진 개요

- 1. 공익활동 바.자.회.** 공익활동을 '바'꿔보고, '자'발적으로 실행해보고, '회'고한다.
- 2. 추진 목적**
  - 시민공익활동의 참여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방식으로서의 공론장 운영
  - 오프라인 공론장의 확장 방안 모색 : 시민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의견 청취, 공익활동 아이디어 발굴
  -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의 시민 참여 아카이브 활용 : 오프라인 공론장의 과정 기록, 결과물 아카이브
- 3. 추진 일정**
- 4. 플랫폼 운영 기간** 2023.8. ~ 2023.12.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홈페이지 기획 및 구축 (빠띠 믹스온 솔루션 활용)					
홈페이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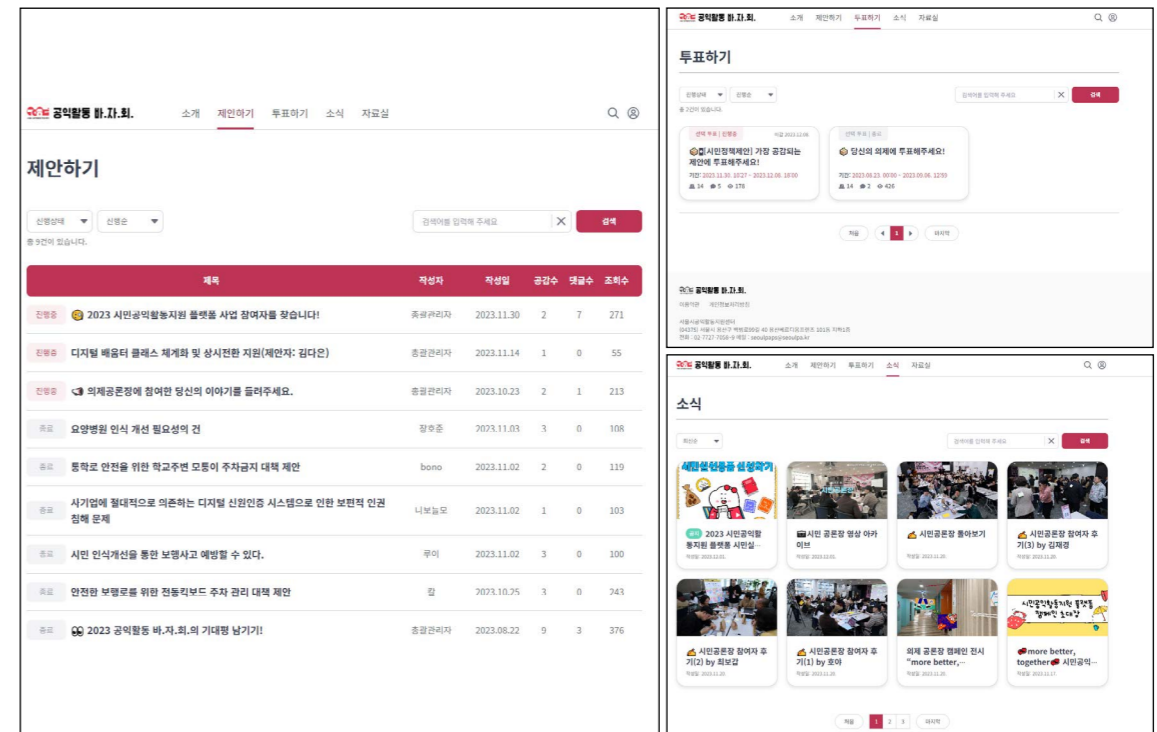


# <공익활동 바.자.회.> 온라인 플랫폼 자세히 보기

## 1. 공익활동 바자회 플랫폼의 구성

소개	공익활동 바자회 플랫폼 안내, 2023년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5개 의제 소개
제안하기	사업에 기대하는 바, 참여 소감,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을 통해 마련된 시민들의 정책제안서 등
투표하기	5개 의제 공론장 중 가장 기대되는 주제에 대한 사전 투표, 시민들의 정책제안서 중 가장 공감되는 제안에 대한 선호도 투표 등
소식	사업 홍보 및 공지사항, 공론장 후기, 이벤트 공지 등
자료실	결과보고 자료집, 활동 자료집 등

## 2.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 현황 : 총 32건



### 3. 온라인 플랫폼 활용

#### 시민들의 이슈에 대한 경향성 파악 및 참여 확장

-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투표나 댓글 이벤트를 통해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참가자의 논의 확대

#### 시기 적절한 업로드를 통해 실시간 소통 기능

-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만들고 빠르게 업로드

#### 공론장의 기록물

- 사진, 영상, 참여자들의 후기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업로드 함으로써 공론장의 결과물을 기록할 수 있고,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까지 공론장의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는 기능

### 4. 온라인 플랫폼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

- 소소한 선물과 함께하는 이벤트 참여 콘텐츠
- 오프라인 행사 전/후의 적절한 콘텐츠 마련을 통해 사전 - 본행사 - 후속의 세 단계가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 설정
-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6. 후속모임

시민참여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  
후속 캠페인

## 6-1. 시민참여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 개요

1.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의제공론장 후속모임  
- 시민참여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
2. 일시 2023년 11월 2일(목), 19:00~21:30
3. 장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회의실1>
4. 목적
  - 공론장 의제 혹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과 정책제안서 작성 후속 모임 진행
  - 문제의식 정리 및 구체화를 통한 서울시 정책제안, 공익활동 연계 및 공공캠페인 전개
  - <공익활동 바.자.회.> 온라인 플랫폼 제안하기를 통한 오프라인 공론장의 확장
5. 참석인원 총 9명 (참여자 및 스태프 포함)
6. 제안서 수 총 5개



## 6-1. 시민참여 정책제안서 작성 워크숍 자세히 보기

### ①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한 보행사고 예방할 수 있다. (제안자 : 루이)

#### ◎ 현황 및 문제점

- 1) 서울시의 보행사고 사망자 수 기준 최근 5년 간 횡단 중 사고, 기타, 차도 통행 중 사고 보도 통행 중 사고로 횡단 중 사고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 기사에 따르면 보행사고 중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사고가 69%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3)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보행사고 중 고령자 비율은 59.8%, 고령자 사용비율은 27%로 보고되고 있음

#### ◎ 사업내용

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인식 개선의 사업이 필요함, 스마트폰 사용, 음악시청 등 인식부족이 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절실함

#### ◎ 기대효과

- 1) 보행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안
- 2) 안전한 서울시 실현
- 3)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교통문화의 선진화 추구
- 4) 환경개선 등의 비용절감효과

### ② 사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디지털신원인증 시스템으로 인한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 (제안자 : 나보늘모)

#### ◎ 현황 및 문제점

- 1) 수익사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저소득, 독거노인, 금융 취약계층의 정보 비대칭 및 사회적 소외현상 심화
- 2) 신원인증 플랫폼 상의 광고성 메시지 증가, 스팸성 메시지 빈도 증가로 인한 사용성 하락
- 3) 공공적 소양을 보장하기 어려운 비정규직, 일용직, 심지어 해외 외주업체 등에 맡길 경우 제재하기 어려움
- 4)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매우 어려우며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움

#### ◎ 사업내용

공공기관 내에 공무원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독립 신원인증 시스템 자체 구비  
· 중앙부처, 지역 거점 기관에 전담 서버 설치, 운용

- 주민센터, 공공인증, 전자자격증명 관련 기관에서 실물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 혹은 자격증 직접 발급

◎ 기대효과

- 수익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독거노인, 노숙자, 난민, 외국인 노동자, 혼외자녀 등 소외계층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음
- 보편적 인권 보장 및 복지, 공익 실현이라는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 배양
- 구축 및 운영비용을 순수히 세금에 의존하면 광고 없고 단순명료한 신원인증 플랫폼으로 구현 가능

③ 통학로 안전을 위한 학교주변 모퉁이 주차금지 대책 제안(제안자 : bono)

◎ 현황 및 문제점

- 1) 빌라 밀집 지역 내 주차장 면수 부족으로 인해 황색 실선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 차량이 많음
- 2) 특히, 화물차, 대형차들이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내에 주차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불안을 주고 있음
- 3) 중고등학교로 가는 차도와의 합류구간에 주차된 차로 인해 보행자와 이동하는 차량으로 혼잡함

◎ 사업내용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주변 이면도로의 모퉁이에 불법주차 금지를 위한 장치 설치하여 주차를 금지하고, 안전 안내문을 거치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학생들의 위험도를 상기함으로써 불법 주차에 대한 인식 계도

◎ 기대효과

통학 구간의 일부 구간이라도 안전을 확보하여 학생들과 차량 운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과 인식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

④ 요양병원 인식 개선 필요성의 건(제안자 : 장호준)

◎ 현황 및 문제점

- 1) 환자가 요양 병원 입원을 거부하고, 돌봄가족은 이를 설득하는 기간동안 환자를 직접 돌봐야만 함
- 2)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환자는 좌절감 및 무기력감을, 돌봄 가족은 환자를 방치했다는 죄책감을 느낌
- 3) 요양병원은 병의 지속적인 관리를 포함하여 제공하나, 집에서 환자를 돌볼 시 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움

◎ 사업내용

- 1) 요양병원의 목적, 활용, 제공되는 지원정책들을 홍보함
- 2) 환자 간의 자조모임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돌봄 가족 간의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원

◎ 기대효과

- 돌봄 가족들의 부담 최소화
- 환자를 위한 빠르고 전문적인 돌봄 가능
- 환자 및 돌봄 가족들의 정서적 안정감 획득

⑤ 디지털 배움터 클래스 체계화 및 상시전환 지원(제안자 : 김다운)

◎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 기기들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신세대와 구세대 간 디지털 격차 발생
- 디지털배움터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연장되며 3년째 시행되고 있는 무료 디지털 학습 제공사업이지만 해당 사업의 연중 공백기로 인해 사업 기간 내 디지털약자가 체득하지 못한 지식과 기술들이 실생활에 활용되기 어려움
- 사업 참여자 간 보유 디지털 기기 관련 지식 및 활용 수준이 상이하여 같은 교육 과정 임에도 불구하고 습득 및 적용에 차등 발생

◎ 사업내용

- 1) 디지털 배움 클래스의 체계화 지원 : 학교 교육 과정과 같이 교육 수준에 따른 커리큘럼 세분화 필요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터치 방법, 용어 학습	스마트폰 기본앱 활용	스마트폰 시중앱 활용

- 2) 디지털 배움 사업 상시 전환 지원

- 공교육 시스템과 같이 디지털 배움 사업의 상시 전환 필요 (연 2회의 방학 / 주 5일 일 최대 2시간 교육 진행 등)

- 3) 디지털 배움 사업 중 아래 수업의 우선적 상시 전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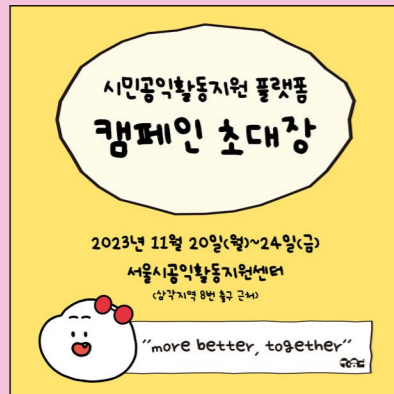
- 스마트폰 사용 및 활용
- 키오스크 사용 및 활용
- 무인가게 사용 및 활용

◎ 기대효과

-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
- 강사진 정규직 채용을 통한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
-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 6-2. 후속 캠페인 개요

1.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의제공론장 후속모임-캠페인
2. 기간 2023년 11월 20일(월) ~ 11월 24일(금) 10:00~21:00
3. 장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곳곳
4. 목적
  -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공론장의 결과물을 반영한 공공캠페인 활동 전개
  - 5개 의제 및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장 참여자 및 일반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를 통한 공익활동 인식 확산 및 경험 제공
5. 캠페인 내용
  - 1) "more better, together" 의제공론장 주제를 담은 비주얼 아트 전시회
  - 2) '메시지를 찍는다' 의류 순환 워크숍 (with. 키후위키)
  - 3) '빛물 시음회' 빛물 자원 순환 캠페인 (with.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 4) '청년 외로움 극복' 캠페인 (with. 니트생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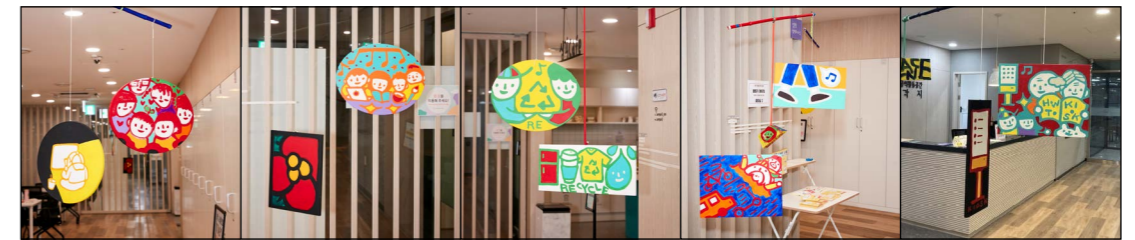


## 6-2. 후속 캠페인 자세히 보기

### ① "more better, together" 의제공론장 주제를 담은 비주얼 아트 전시회 (by. 신주옥 작가)

아동권	외로움	순환경제	보행권	디지털약자
2작품 모빌	2작품 모빌	2작품 모빌	2작품 모빌	3작품 모빌

- |                     |                     |                     |                    |                    |
|---------------------|---------------------|---------------------|--------------------|--------------------|
| ① 지름40 타원<br>면천캔버스  | ① 30X37<br>나무캔버스    | ① 52X22.5<br>나무캔버스  | ① 47X26.5<br>나무캔버스 | ① 37X29.5<br>나무캔버스 |
| ② 50X40 타원<br>면천캔버스 | ② 50X40 타원<br>면천캔버스 | ② 50X40 타원<br>면천캔버스 | ② 45X34<br>나무캔버스   | ② 20X54<br>나무캔버스   |
|                     |                     |                     |                    | ③ 33X13.2<br>나무캔버스 |



### 작가의 말

우리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누구 하나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사람이 없이 어떤 가족의 형제자매이고, 부모자식이고, 친구이고 지인이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

우리는 모두 시작이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났기에 공동의 삶의 시간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일들은 순리대로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빠른 과정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너무 앞질러가기에 정말 우리를 위한 기술과 사회가 맞을까 하는 의문에 휩싸이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나는 그런 각 문제들에 대해 이번 작업을 통해 크게 자각하고 '참고'하여 내가 가진 큰 저울의 무게에 그들을 달아볼 생각이다. 시대의 흐름이 옳은 것일까? 인간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일까? 그 평온의 상태에 대해 나는 지금 생각한다. 함께 발전하고 함께 누리며 잘 살아가는 방법.

어쩌면 모든 것은 시대에 따라 함께 나아가야 하는 필요충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적절하고 완벽한 균형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

③ '메시지를 찍는다' 의류 순환 워크숍(with. 키후위키)



실크스크린 워크숍	실크스크린을 직접 체험해보기
의류 순환 소개	<b>실크스크린 참여자 대상</b> - 캠페인의 목적 - 메시지의 의미 (more better, together) - 의류 순환의 의미 - 구제 티셔츠 활용, 단체티 제작의 대안 등을 설명

③ '빛물 시음회' 빛물 자원 순환 캠페인 (with. 노원도시농업네트워크)



물순환 모형 전시	시민이 참여해 만들 수 있는 물순환 방법 (물모이 모형 전시)
이끼 관찰	도시에서 탄소흡수원 늘릴 수 있는 식물 알아보기 이끼 넌 누구니? (이끼관찰과 도시에서 적용한 사례보기) ppt활용한 강의형식으로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나눔
빛물 시음회	아리수 / 생수 / 빛물 정수 된 물 세가지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마셔보고 어떤 물이 제일 맛있는지 투표해 봄

④ '청년 외로움 극복' 외로움 극복 캠페인 (with. 니트생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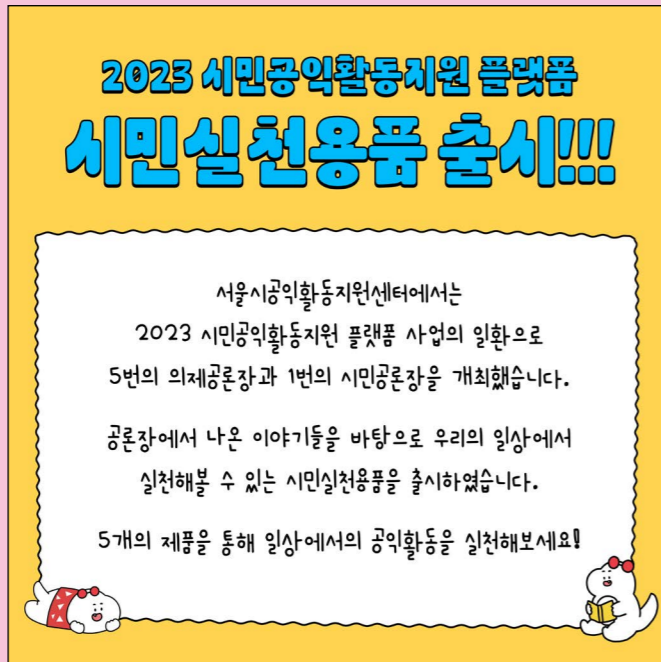
'력습지' 체험판: 무기력 탈피를 위한 학습지	30일간 매일 제공되는 작은 미션 '창문열고 환기하기', '아침 물 한잔 마시기'를 수행하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활동
나만의 소속 명함 만들기	가상회사 니트컴퍼니에서 제공하는 나만의 소속과 직함을 만들어 소속감과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의 해보는 활동
외로움 상담소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 사회적 외로움에 대해 5분간 털어놓고, 티타임과 함께 위로 문구를 뽑아보는 활동

## 7. 시민실천용품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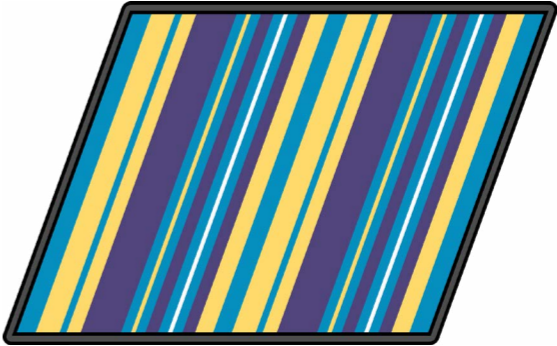
# 시민실천용품 제작 개요

1. 사업명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시민실천용품제작
2. 목적
  - 5개 의제공론장의 논의 결과 확산 및 홍보
  - 공론장의 논의를 넘어 일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해볼 수 있는 실천 용품 제작 필요
  - 시민들에게 공익활동의 실행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효능감 제공
  - 시민실천용품의 활용을 통해 사회의 실제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함
3. 시민실천용품 종류
  - 1) 아동권 : 함께 키우는 돗자리
  - 2) 외로움 : 외롭지않다이어리
  - 3) 순환경제 : 폐유리를 활용한 달콤티코스터 DIY 키트
  - 4) 보행권 : “나는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입니다” 스티커와 커피박을 활용한 차량용 방향제
  - 5) 디지털약자 : 디지털공공성 스티커 3종



# 시민실천용품 제작 자세히 보기

## ① 아동권

제작 용품	<p>페플라스틱으로 만든 친환경 돗자리 &lt;함께 키우는 돗자리&gt;</p> 
기획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돗자리를 펴는 곳은 어디든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앉아서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회적 육아의 장으로서 실내, 실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li> <li>· 환경까지 생각하는 페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친환경, 재활용의 교육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휴대하고 다니기도 편리함</li> </ul>


## ② 외로움

제작 용품	<p>외로움을 극복할 힘을 만들어주는 월간 다이어리 &lt;외롭지않다이어리 &gt;</p> 
기획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로움 의제공론장 시 외로움과 고립에 빠질 때의 신호 중 하나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생활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건강해지지 않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음</li> <li>· 이에 따라 나를 돌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및 외로움 극복 기록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고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제작하고자 함</li> </ul>


### ③ 순환경제

	<p>폐유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DIY키트 &lt;달콤티코스터&gt;</p> 
제작 용품	
기획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환경제의 의미를 되살리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의 가치를 경험하게 함</li> <li>· 순환경제의 세부 의제 중 유리병 재사용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이에 따라 인식 확대의 측면에서 폐유리병 재활용 업사이클링 키트를 제작함</li> <li>· DIY 키트 완성품은 실생활에 사용 가능하고, 만들어보고 싶은 제품으로 구성함</li> </ul>

### ④ 보행권

	<p>"나는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입니다" 1종 스티커 및 차량용 방향제</p> 
제작 용품	
기획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권 의제공론장을 통해 사람이 우선이라는 인식 확산의 중요성이 주요한 의견으로 나왔음</li> <li>· 보행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행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인식개선과 노력이 필요함</li> <li>· 발상을 전환하여 운전자들에게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 제공을 통해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운송수단에 부착하여 보행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인식 개선을 진행하고자 함</li> </ul>

### ⑤ 디지털약자

	<p>사람이 먼저, "천천히 주문 해요", "디지털 공공성", "우리는 모두 디지털 강약중간약자" 3종 스티커</p> 
제작 용품	
기획 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약자의제 공론장을 통해 키오스크 활용에 대한 어려움의 이야기가 주로 나왔음</li> <li>· 모두가 디지털강자가 되기 위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은 디지털 공공성의 인식이 중요함</li> <li>· 기다리고 배려하고 요청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하여 일상에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배려와 존중할 수 있는 공공성 문화 조성</li> </ul>

# 부록

## 의제공론장 발제자료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pa.kr>)

또는

공익활동 바.자.회. 온라인 플랫폼  
(<https://seoulpaps.seoulpa.kr>)

으로 접속하여 확인해주세요 :)

# 자료집을 마치며

## 담당자들의 이야기

### 최미령

#### 활동지원팀 매니저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의 첫 해, 첫 공론장 사업을 담당하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공론장에 대한 막연함, 코로나 이후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라는 부담감으로 참여자들을 많이 모집하고 싶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효능감을 줄 수 있을까 등 사업 자체를 '잘' 하고만 싶었던 첫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기획하면서는 다양한 자문을 통해 공론장을 기획하는 과정 그 자체가 담당자에게도 공부였고, 공동협력추진단, 회의설계소, 빠띠 등 함께 협력해준 단체들과 일하면서 배움이 많았습니다.

피드백 회의를 통해서도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는 장 자체가 기쁘고 희열이 느껴졌다는 이야기가 인상 깊습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며 결과보고서를 쓰는 이 순간에도 사업의 결과가 잘 나온 것일까? 걱정하며 성과에만 집중하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잘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만족스럽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공론장에서 함께함이 누군가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이라 믿으며 사업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은 2024년도에는 다른 방식과 모임으로 만나게 될텐데요, 우리가 선정했던 5개의 의제가 공익활동으로 실현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걸음으로 모아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도 지켜봐주세요!

### 박예지

#### 활동지원팀 매니저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의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공부'의 시간을 보내고, 공론장을 통해 '경험'을 쌓는 기회를 얻고, 공익활동으로 풀어나가려는 방법을 모색하며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론장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남겨주신 소감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퇴근하고서 너무 피곤해서.. 참여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신청도 했고.. 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도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걸 같이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참 즐거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론장을 통해 소통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셨다면

이 자료집을 통해 공론장의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논의된 내용과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2024년에는 더욱 풍요로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2023 시민공익활동지원 플랫폼 사업 결과보고서

**발행일** 2023년 12월 21일(seoulpa 2023-A-004)  
**발행처**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옴프렌즈 101동 지하1층  
**대표전화** 02-734-1109  
**이메일** contact@seoulpa.kr  
**홈페이지** www.seoulpa.kr  
**디자인** 페이퍼워크